



### 6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동열 동문  
대전지방국세청 박동열 청장을 만나 세무 공무원으로서의 철학과 학창시절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들어봤다.

# 동대신문

금주일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안락을 얻는 이치(理法)를 믿고 정진하고 총명하다면, 가르침을 받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스튜디오 제1장 사품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5호 2010년 (불기 2554년) 9월 6일 월요일

Cover Story 방학 중 확 변한 캠퍼스의 모습

## 캠퍼스, 환골탈태(換骨奪胎)하다!

### 원흥관·동국관 등 휴게공간 개선 ... 정문과 후문도 정비

여름방학 동안 학내 곳곳에서 진행된 교육환경 개선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새 학기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괄지원팀에 따르면 지난 여름 방학 중에 진행된 학내 교육환경 개선 공사는 △후문 환경 개선 공사 △원흥관 앞 목재계단 설치 공사 △원흥관 앞 휴게공간 조성 △경영관 앞 자갈밭 휴게공간 조성 △학명 세미나실(기존 문화관 제3세미나실) 리모델링 등이다.

#### 교문의 상징성 되찾은 후문

방중에 학교를 찾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개교 후 등교하면서 크게 놀랐을 것이다.

기존에 있던 기둥과 교문, 경비실이 철거돼 후문의 외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총괄지원팀의 김용석 과장은 "교내 남산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교를 개방(開放)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후문의 경비실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비어있던 경비실뿐만 아니라 기둥과 교문까지 철거해, 답답해 보이던 후문의 미관상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 미관상 문제만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후문에는 우리대학의 교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타낼만한 상징물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화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학교를 상징하는 UI 구조물을 설치했다.

후문이 이번 환경 개선 공사로 인해 교문의 상징성을 되찾은 셈이다.



▲세일병원앞 후문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 학생 위한 편의시설 마련

현재 원흥관 앞에는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목재 계단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총괄지원팀의 김범중 팀장은 "원흥관을 이용하는 공대 학생들의 수는 많지만, 정작 마땅한 휴게공간이 조성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을 것"이라며 원흥관 휴게공간 조성 계기를 밝혔다.

원흥관 휴게공간은 개방형으로 조성되나, 지정 흡연 구역인 스모킹 라운지의 경우 밀폐(密閉)된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목재 계단은 정보문화관 옆의 비탈길과 원흥관 입구에 조성된다. 특히 정보문화관 옆 비탈길의 경우 경사가 급해 우천 시 미끄러지기 쉬워 위험했지만, 목재 계단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재 계단 구조물 설치

완료됐지만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스테인 작업과, 계단에 눈슬립(미끄럼방지)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이 우천으로 인해 지연(遲延)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영관 앞 자갈밭에도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해 경영관 쪽 휴게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관 앞 자갈밭에 휴게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영관 앞 자갈밭 휴게공간은 개방형으로 조성되는 원흥관 휴게공간과 달리,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용석 과장은 "원래 교내 휴게공간 조성 공사는 개강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계속된 우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명 세미나실 리모델링

기존 문화관 제3세미나실이 학명 스님이 기부한 발전기금을 이용해 리모델링하고, 학명 세미나실로 이름을 바꿨다. 이로 인해 기존 150석 이던 좌석이 176석으로 확장(擴張)됐고, 내부에는 최첨단 음향기계가 설치됐다.

또한 세미나실 앞 화장실이 있던 공간을 소형 세미나실로 조성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과장은 "학술 세미나가 진행될 때 카운터를 마련할 공간이나, 손님들이 대기할만한 장소가 없어 문제가 됐다"며 소형 세미나실을 조성하게 된 까닭을 설명했다. 또 김용석 과장은 "세미나가 진행될 때에는 카운터나 대기 공간으로 사용되겠지만, 학기 중에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 팔정도(八正道)

초기 불교의 실천적 덕목 가운데 팔정도(八正道)가 있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수행방편으로 삼십칠각지(三十七覺支)가 있었는데, 각지라는 말은 보디양가(Bodhiyanga)를 번역한 말로서, 깨달음의 수단, 즉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의 수행방편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다양한 불교수행의 핵심은 여전히 팔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서 대각을 얻으신 후 바라나시(Varanasi)까지 약 219Km를 걸으셨다. 이곳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비구를 교화하심으로써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한다. 그 때의 핵심 실법이 바로 팔정도였기 때문에, 이 수행은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중에 이 팔정도는 다시 삼학(三學)으로 압축되어서 탐, 진, 치의 삼독(三毒)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팔정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여덟 번을 반복한 「올바르다」(正)는 개념이다.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성스럽다」는 개념이 꼭 중요하게 여겨진다. 삼위일체는 물론이며, 성자·성인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는 이 성스러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 물론 부처라는 의미 자체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을 가르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깨달은 존재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라는 특징도 있다. 대승불교에 이르면, 이 극단을 극복하는 방편이 불이(不二)로 설명된다.

생과 사, 세속과 열반, 선과 악 등 대립적 개념들이 궁극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일 뿐이라는 선언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장 경계한다. 『유마경』은 용의주도하게, 선과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선과 불선(不善)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씀으로써 양자의 대립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올바른 수행과 올바른 마음가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불교적 견해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인 셈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지럽고 복잡한 까닭은 올바르지 못한 견해가 난무하고, 올바르지 못한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유행하기 때문이다. 악업은 복수를 부르고, 이 피의 유행은 또 다시 두터운 업장으로 이어진다.

결국 사람답다는 것은 결코 그 야수적 욕망을 누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다」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학문을 연찬하고, 인격을 높이는 일 또한 이 올바름의 추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병조

윤리문화학과 교수

## 수습기자 추가 모집

9월 16일 오후 6시 마감  
문의 : 02)2260-3491

금주의 동대신문

2 학과 평가 결과따라 정원 재배치

7 [기획] 학제개편 둘러싼 논란

12 [화보] 2010 상하이 엑스포

이번 호는 2010학년도 2학기 개강호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2010 동국대학교 Homecoming Day

동국아~ 학교가자!



- 일 자 : 2010년 10월 2일(토요일)
- 행 사 : **제1부 대학(원)·학과별 만남의 장**  
16:30~18:00 / 지정 장소
- 제2부 화합 한마당**  
18:30~20:00 / 만해광장
- 참석대상 : 전체 동문
- 문 의 : 대외협력단 대외지원팀  
(02)2260-8991, 2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국대학교

회전무대

무한반복 악순환

○...1학기 초: 열공해서 A+ 받아야지! 1학기 중: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1학기 말: 성적은 돈 텔 마마. 2학기 초: 이번에는 꼭 열공해서 A+ 받아야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악순환은 이제 그만”

아버이 사랑 모아 태산

○...우리대학 학부모들의 사랑이 동악을 감동시켰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학부모의 자발적 기부로 이뤄지는 아버지 장학기금이 시행 한 학기만에 6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이런 학부모들의 ‘십시일반’을 통해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아버이사랑 모아 태산’이라.

동악의 전사들

○...동국의 월드컵은 끝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고 하니, 올해 추계 대학 연맹전에서 파죽지세로 우승을 차지한 우리대학 축구팀 얘기라고. 열악한 환경에서 더 강한 투지를 이끌어내는 우리 대학 축구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태극전사 못지 않은 뜨거운 동악전사!”

흙 속의 진주

○...우리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고 하니, 이번 2011년도 입시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모집인원을 전체의 20%로 증가시켰다고. 줄 세우기 식 입시를 타파하고,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한 전형 확대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인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인원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흙속의 진주를 찾아낼 수 있을 듯”

사회학 전공 등 7개 학과 정원 감축

학과별 평가결과 발표...감축인원은 신설된 약학과에 배정

2011학년도 입학정원관리시스템 결과가 지난 7월 발표됐다. 이번 결과로 하위 15%에 속한 사회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물리학과, 철학전공, 수학과, 북한학 전공, 화학과의 2011학년도 입학정원 감축(減縮)이 결정됐다.

평가 순위 하위 1-4위 학과인 사회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물리학과, 철학전공의 입학정원이 2010학년도보다 15%씩 줄어든다. 하위 5-7위 학과인 수학과, 북한학전공, 화학과로 입학정원이 10%씩 줄어들었다. 또한 기존의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와 명칭이 건설환경공학과로 변경됐다.

이번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따

라 7개 학과(전공)에서 감축된 19명의 인원은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약학과에 배정된다. 또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전자전기공학부에서 1명을 감축해 약학과의 정원인 20명을 충원(充員)하게 된다.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학과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과(전공)의 입학 정원을 감축해 특성과 재배정하는 것으로, 우리대학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지난 2008년부터 실행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2011학년도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사범대학 및 의생명공학전공을 제외한 48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재

학률(40%) △졸업생 취업 및 진학률(25%) △입학성적(15%) △교수 1인당 대학원생 수(15%) △입학경쟁률(5%)이다.

2011학년도 입학정원관리시스템 결과로 정원이 변경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학전공 26명→23명 △윤리문화학전공 17명→15명 △물리학과 26명→23명 △철학전공 19명→17명 △수학과 36명→33명 △북한학전공 20명→18명 △화학과 40명→36명 △전자전기공학부 179명→178명 △약학과 20명 신설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건설환경공학과(학과 명칭 변경)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Hello, Global Dongguk! 지난 31일, 새로 온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만해관 모의법정과 상록원에서 OT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20개국 5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했다.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가을학위수여식 성료(盛了)

2010학년도 가을 학위수여식이 지난 달 20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일반대학원 박사 60명, 일반대학원 석사 169명, 특수대학원 박사 2명, 특수대학원 석사 330명, 학사 766명으로 총 1,327명이 학위를 받았다. 오영교 총장은 “동악의 광장을 떠나 맞이할 미래의 바다엔 폭풍우와 파도가 가

득하겠지만, 이를 불굴의 용기와 지혜로 극복해 사회와 세계에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0학년도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성적우수상을 받은 각 단과대별 수석(首席) 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문과대=장용욱(영어영문학) △공과대=정준영(전기공학) △사범대=국어교육(이보윤) △영상미디어대=유정아(영화영상학)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생협, 한가위 귀향버스 운영

부산 등 12개 노선 30%이상 할인

생활협동조합에서 9일부터 7일간 한가위 귀향버스 신청을 받는다.

올해 운행되는 버스 노선은 부산, 대구, 대전 등 총 12개 노선으로, 오는 20일 10시, 대운동장에서 출발한다.

귀향버스 신청은 상록원과 그루터기학생식당에서 현장접수하거나 생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接受)할 수 있다.

사범대 교원양성기관 평가서 A 등급

입학 정원 자율권 · 교장 양성 과정 설치 가능해져

우리대학 사범대가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범대학 학부과정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우리대학을 포함해 8군데에 불과(不遇)하다. 이로써 우리대학 사범대는 학과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을 얻었고, 교사양성 특별과정과 교장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이해은 사범대 학장은 “그동안 임용시험 대비 특강을 진행해오는 등 사범대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왔다”며 “그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해은 학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리대학 사범대만의 특성을 살리는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전국 45개 사범대학, 49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40개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 임용률, 연구실적 등이 다. 한편, 우리대학은 교직과정 평가와 교육대학원 평가에선 C등급을 받았지만 교직과정 평가 부분에서는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대학이 없어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2010년도 2학기 전체교수회의 개최

강의평가결과 분석 등 학사 업무 보고 이뤄져

2010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전체교수회의가 지난 8월 30일 장충동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전체 교수회의는 경영분야, 취업분야, 교양교육, 사업개발 등에 대한 학사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학사분야의 강의 평가 결과 분석이 중점적(重點的)으로 이뤄졌다. 또한, 경영분야 학사보고에서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이로써 두 캠퍼스간의 독립 경영 시스템이 구축(構築)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사업을 필두(筆頭)로 원흥관과 경영관, 그리고 중앙 도서관의 옥상 정원 단장을 비롯한 학내 건물들의 큰 변화를 설명했다. 이날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한 오영교 총장은 교수들에게 강의 평가의 첫 시행 이래로 평점이 나날이 올라가는 것을 치하(致賀)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교수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대학의 약진(躍進)을 위해 감내(堪耐)해 달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한국가스공사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위탁교육 · 인턴십 교육 교환 제공하기로 합의

우리대학이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와 산학협력을 체결(締結)했다. 이로 인해 우리대학과 한국가스공사는 서로 간의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構築)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대학은 한국가스공사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제공(提供)하게 된다.

위탁교육은 우리대학 과노성 교수(국제통상학)가 담당하며,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인턴십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과 협력해 신에너지 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開發)할 계획이다.

2010년 하반기 (삼성 및 대기업) 모의 직무적성검사 실시

구분	모집인원	일시	장소	접수방법
삼성 SSAT 해법 특강 및 SSAT 검사 실시	300명	SSAT 해법특강 9.8(수) 14:20~17:20	본관 중강당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SSAT 검사 9.8(수) 17:30~20:40		
(대기업)기업별 직무적성검사 실시	200명	9.8(수)~11.30(화)	온라인 실시	

\* (대기업) 기업별 직무 적성 검사는 대기업 16개 중 택하여 실시 (온라인 실시)  
두산, SK, 현대·기아자동차, STX, 한화그룹, LG CNS,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CJ그룹, LS, LG화학, 동부, 하이닉스

※ 검사별 비용 2~3만원선  
(단, 학생부담 접수비 3,000원, 나머지 전액 학교 지원함)  
※ SSAT 해법 특강 및 SSAT 검사 실시에 대한 확인서 발급 가능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TEL 02-2260-3056

‘동국 튜터링’ 및 ‘Do Dream 학습동아리’ 공모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2010년 ‘동국 튜터링’ 및 ‘Do Dream 학습동아리’ 참가자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발팀수 및 장학금

구분	선발팀수	장학금	팀 구성 인원
동국 튜터링	55팀	50만원 (튜터)	3~6명 (튜터 및 리더 포함)
Do Dream 학습동아리	70팀	40만원 (이수 팀당)	

※ 중복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10. 9. 8(수) ~ 9. 15(수)
- 신청방법 : uDrims(http://udrims.dongguk.edu)를 통한 개별 신청
- 선정팀 발표 : 2010. 9. 20(월),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문의 : ☎ 2260-8813(담당 : 하오선)
- 자세한 내용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ctl.dongguk.edu)

교수학습개발센터  
TEL 02-2260-8813

중앙도서관 이용시간

건물	층	장소	요일 시간	
			평 일	토요일 / 일요일
중앙도서관	3층	불교학자료실	09:00-21:00	09:00-17:00
	2층	대출반납실		
		멀티미디어실		
	1층	자연과학실		
	지하 1층	사회과학실		
	지하 2층	인문과학실		
법학도서관	4층	4층 열람실	06:00-24:00	
	지하 3층	별관 열람실	06:00-24:00	
	PC 검색코너		08:00-23:00	
법학도서관	3층	단행본실	09:00-21:00	09:00-17:00 (일요일 휴관)
		멀티미디어실		
	2층	참고자료실		
1층	열람실	24시간 개방		

- ※ 기간 : 2010. 9. 1(수) ~ 12. 21(화)
- ※ 학기 중 일요일에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중앙도서관 및 법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은 일요일 휴관입니다
- ※ 시험기간 중 이용시간 안내는 별도로 공지 예정

2010. 8.

중앙도서관장  
TEL 02-2260-3056

# 축구부, 10년만에 전국대회 우승(優勝)

## 추평강 2골 맹활약 힘입어 영남대에 2:1 승리 ... 안일주 최우수선수상



▲ 축구부 선수들이 조종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략홍보실)

우리대학 축구부(감독=김종필)가 지난 1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1회 전국대학축구 추계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대학축구의 정상에 올랐다. 축구부는 2골을 넣은 추평강 선수를 앞세워 영남대에 2:1로 승리(勝利)했다. 우리대학과 영남대는 전반 초

반부터 폭우 속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축구부는 정교한 패스를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나갔다. 치열한 미드필드 싸움이 전개되던 전반 12분, 공격수 추평강은 오른쪽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으며 1:0으로 앞서 나갔다. 계속해서 축구부는 강한 미드필드 압박(壓迫)을 이어

나며 경기를 주도했다. 이어 축구부는 전반 35분 추평강의 골로 2:0을 기록해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추평강은 황명규의 패스를 오른쪽으로 가볍게 밀어 넣으며 경기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황명규와 추평강의 콤플레이어가 만들어낸 멋진 득점이었다. 하지만 수비수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전

반 추가시간에 울산대 공격수 이진석에게 한 골을 허용하며 2: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초반부터 영남대의 거센 공세(攻勢)가 이어졌으나 축구부는 수비라인을 촘촘히 세우며 2대 1의 리드를 지켜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편, 같은 대회에서 1981년과 2005년 준우승에 만족했던 축구부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또 축구부는 이번 우승을 통해 지난 2년간 전국대회에서 두 번이나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날렸다. 팀의 우승을 이끈 주장 안일주가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대회 내내 열정(熱情)적으로 선수들을 이끌어 온 김종필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또 수비수 최보경과 골키퍼 이호승이 각각 수비상과 골키퍼상을 수상했다. 김종필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 것이 우승의 비결"이라며 "오늘 승리는 올해 추계연맹전 4강에서 우리대학을 꺾고 우승한 영남대를 이긴 것이라 더욱 값지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또 주장 안일주는 "선수들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우승의 주역은 바로 우리!”

#### 축구부 슈퍼스타 4인방 인터뷰



대회 직후 주장 안일주 선수(사진 오른쪽), 수비수 최보경 선수(오른쪽에서 두번째), 골키퍼 이호승 선수(맨 왼쪽), 공격수 추평강 선수(왼쪽에서 두번째)를 만났다. 우승에 대한 소감(所感)을 묻자 안일주 선수는 “주장으로서 부담감이 컸다”며 “그것을 극복해 냈기에 기쁨이 두 배”라고 말했다. 최보경 선수는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이 모두 잊혀졌다”며 “해냈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고 우승 순간을 회상했다. 이호승 선수는 “두번째 골이 들어간 이후로 계속 눈물이 흘렀다”며 “빛물에 가려져 다행”이라며 머쓱해했다. 결승전에서만 두 골을 몰아치며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추평강 선수도 “10년간 못 이뤄낸 우승을 이뤄내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승은 결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축구부는 지난 7월 약체로 꼽히던 한라대에겐 0:1로 저 32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게임이 끝난 후 김종필 감독의 극기 훈련이 이어졌다. 태백의 한 운동장에서 직접 밥을 해먹으며 일주일간 지옥훈련에 돌입했다. 고된 훈련의 반복으로 선수들은 육체적으로 지쳤지만 정신적으로 단단해졌다. 선수들은 하나같이 그 때를 회상하며 고개를 저었다. 지옥 훈련 탓인지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큰 사고를 쳤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입학사정관 전형 대폭확대

### 8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접수, 수시모집 정원 1,538명 선발

수시 1차 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올해 우리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총 1,538명이며, 이 중 1,270명의 학생이 수시 1차 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우수자=469명 △입학사정관전형=551명 △World Wide 인재=65명 △외국어우수자=95명 △외국어·국제교출신자=39명 △전공재능우수자=21명 △체육특기자=30명이다. 한편 이번 수시 1차 모집에는 입학사정관전형이 크게 확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집 인원은 총원 대비 20%로 증가했으며, Do

Dream 특성화 전형, 학교장 추천전형, 중구핵심인재 전형이 신설됐다. Do Dream 특성화 전형은 단과대별 특성에 따라 △Do Dream 특성화 I=1단계:서류심사(100), 2단계:1단계서류성적(40)+전공수학능력평가(60), △Do Dream 특성화 II=1단계:서류심사(100), 2단계:1단계서류성적(40)+특성화면접(60)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단과대별 지원 전공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 중구핵심인재 전형은 중구소재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범대학의 7개 학과(교육학과, 가정교육, 국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

육, 지리교육, 체육교육)에서 각 학과마다 1명씩 총 7명의 학생을 선발(選拔)한다. 중구핵심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및 비교과영역(40)과 학생부(60)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한 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성적(60)과 면접(40)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체육교육과 의 경우 면접대신 실기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수시 1차 모집은 오는 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0월 9일 논술고사, 23일부터 31일까지 실기고사와 면접고사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8일 본교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안내(ARS)를 통해 발표된다. 강기모 기자 km1004@dgu.edu

### 직원노조 위원장에 변승재



제 14대 직원노조조합 위원장에 변승재(문과대) 과장이 97%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직원노조는 지난달 11일 중앙당에서 2010 직원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변승재 과장, 부위원장 조성환(학생서비스팀 계장), 조계상(총괄지원팀)팀원을 투표 참가자 97.8%의 찬성으로 선출(選出)했다.

### 2010 취업박람회 7일까지

취업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취업박람회가 하반기 취업(就業)시즌을 맞아 오는 7일까지 중앙당과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삼성그룹 채용(採用)박람회가 중앙당에서 진행되며 이어 6일부터 7일까지는 만해광장에서 기업 채용관을 설치해 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각 기업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수회와 총학생회 측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두고 학교, 교수회, 총학생회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무팀의 김영훈 팀장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대해 “학교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변화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회와 총학생회 측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다. 교수회 측은 지난 7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학교당국이 학내구성원들을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 아버이 장학기금 6천만 원 돌파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라는 구호(口號)를 내건 아버지 장학기금이 시행 한 학기 만에 6천만 원을 돌파(突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월에 신설된 아버지 장학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탁(寄託)한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한 학기 동안 426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현재 6278만원의 장학기금이 모아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지급 대상이나 전달 시기는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대외기획팀의 김진환 팀장은 “5만원을 기증해주신 학부모부터 100만 원 이상을 쾌척하신 학부모까지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힘을 합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리영자·조영록 명예교수 기부



우리 대학 리영자(불교학과) 명예교수와 조영록(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1일 각각 1천만 원의 후배사랑 장학기금을 약정했다.

리영자 명예교수와 조영록 명예교수의 기부는 지난해 10월 김주필 명예교수, 12월 이희우 명예교수, 올해 7월 이해홍 명예교수의 기부로 이어 이뤄진 것으로 퇴임 교수들의 기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불교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는 리영자 교수는 재직시에도 1,1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화제가 된 바 있다.

## 공인회계사 합격자 역대 최대

올해 우리대학의 공인회계사시험(CPA) 최종합격자가 총 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작년의 2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대학은 전국 8위를 기록했다. 많은 합격자 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상철(회계학과)교수는 “우리대

학은 회계학 전공이 있어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유리하며 학교 측의 지원도 다른 대학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철 교수는 “합격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합격한 학생들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 2010 홈커밍데이 10월 2일 개최

2010 홈커밍데이 행사가 다음달 2일 각 단과대별 대형 강의실과 만해광장에서 개최된다. 홈커밍데이는 전제 동문들의 참여에 학교와 동문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학교발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참가대상은 전체 동문 및 기부자이며, 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다. 2010 홈커밍데이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행사인 ‘대학(원)별 만남의 장’에선 각 학과별 자체(自體) 행사가 단과대별 대

형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2부 행사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는 전체 동문 합동(合同) 야외 가든파티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고객 기부자에 감사패 전달

대외협력단이 지난달 9일 고객 기부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고객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은 3천만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쾌척(快擲)한 고객기부자에 대한 예우(禮

遇)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경섭(주)소비코 회장, 김인겸(주)교차로신문사 회장 등 총 8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 본사사령

- ◇ 임기만료
  - ▲편집장=정웅재 (영어통 3)
  - ▲대학부장=김활란 (문창 3)
  - ▲학술부장=이정민 (정보통 3)
  - ▲문화부장=이신혜 (신방 3)
  - ▲사진부장=김윤수(경제 3)

- ◇ 신임부장
  - ▲편집장=최진아 (경영 2)
  - ▲대학부장=이슬비 (국문 2)
  - ▲기획부장=이지연 (국문 2)
  - ▲문화부장=백선아 (불교미술 2)

- ◇ 임정기자
  - ▲하상원 (영문학부 1)
  - ▲최익래 (신문방송 1)
  - ▲강기모 (경영학부 1)
  - ▲김보혜 (문예창작 1)

-이상 9월 6일자

### 동악로에서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 주인의식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두고 학교, 교수회, 총학생회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무팀의 김영훈 팀장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대해 “학교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변화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회와 총학생회 측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다. 교수회 측은 지난 7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학교당국이 학내구성원들을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 못했다. 신문방송학과와 배창호 학생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영문학부의 A학생 역시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사항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렇듯 일반 학생들의 경우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켜 더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대학을 취업양성소로 전락시킬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처럼 향후 학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학교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2010학년도 가을 학위수여식 석·박사 명단



## 박사학위 (62명)

### 일반대학원 (박사 60명)

▲**불교학과** △정광균 불교학전공 △김홍미 불교학전공 △박찬욱 불교학전공 △강기선 불교학전공 △원영만 불교학전공 ▲**선학과** △황규연 선종사건공 △박동춘 응용선학전공 ▲**인도철학과** △정경숙 인도불교전공 ▲**사학과** △김지은 한국사학전공 △김용화 한국사학전공 ▲**미술사학과** △김유식 미술사학전공 ▲**철학과** △신승철 서양철학전공 ▲**교육학과** △권효진 교육심리·상담전공 ▲**법학과** △고인석 헌법전공 ▲**심리학** △주성진 심리상담사법전공 △김영수 범죄수사법전공 ▲**행정학과** △신영근 정책학전공 ▲**경찰행정학과** △임석택 범죄학전공 △주성진 범죄학전공 △김양현 경찰학전공 △김수정 경찰학전공 △이재영 경찰학전공 △신성철 경찰학전공 △권해림 경찰학전공 △강소영 경찰학전공 ▲**북한학과** △김희식 북한체제전공 ▲**무역학과** △최규진 국제통상·지역전공 ▲**관광호텔경영학과** △유경아 푸드비즈니스전공 ▲**관공통역학과** △김승숙 푸드비즈니스전공 ▲**국어교육학과** △서승아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학과** △김승술 영어교육전공 ▲**경영학과** △설승현 마케팅전공 ▲**정보관리학과** △심형섭 정보통신전공 ▲**생명과학학과** △김성민 동물분류 및 생태학전공 ▲**전자공학과** △백용현 반도체공학전공 ▲**건축공학과** △김오성 건축계획전공 ▲**식품공학과** △강경도 식품공학전공 ▲**연극영화학과** △양영철 영화학전공 ▲**한의학학과** △장재식 내과학전공 △김호 내과학전공 ▲**정형외과학과** △정재하 정형외과학전공 ▲**의학과** △김희철 진단학전공 △김명준 체질의학전공 △손준민 안이비인후·피부과학전공 ▲**의학과** △차우현 비뇨기과학전공 △송진영 해부학전공 ▲**치위생학과** △박정근 예방의학전공 ▲**이호중** 피부과학전공

### 영상대학원 (박사 2명)

▲**영화영상학과** △오기환 영화사나리오전공 ▲**멀티미디어학과** △이한석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 석사학위 (499명)

### 일반대학원 (석사 169명)

▲**불교학과** △김경화 응용불교학전공 △송인식 응용불교학전공 △손범준 응용불교학전공 ▲**강경숙** 불교학전공 ▲**이기홍** 불교학전공 ▲**김성주** 불교학전공 ▲**서혜원** 불교학전공 ▲**김현진** 불교학전공 ▲**서정인** 불교학전공 ▲**선학과** △태기욱 선사사건전공 ▲**정혜원** 응용선학전공 ▲**이경희** 선학전공 ▲**국어국문학과** △손준수 현대문학전공 ▲**정보람** 현대문학전공 ▲**안순욱** 고전문학전공 ▲**홍진영** 고전문학전공 ▲**민희주** 고전문학전공 ▲**곽미라** 고전문학전공 ▲**전선영** 고전문학전공 ▲**전자영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진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김지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이민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이은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김준광**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유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정새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이아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영어영문학과** △김진현 번역학전공 ▲**한문학과** △최상철 한국한문학전공 ▲**중어중문학과** △고지영 중국어문학전공 ▲**김미미** 중국어문학

전공 ▲**사학과** △오택현 한국사학전공 ▲**홍성민** 동양사학전공 ▲**미술사학과** △김소의 미술사학전공 ▲**이상**은 미술사학전공 ▲**백은정** 미술사학전공 ▲**정승현** 미술사학전공 ▲**김미혜** 미술사학전공 ▲**철학과** △이재광 서양철학전공 ▲**교육학과** △박종향 교육심리·상담전공 ▲**법학과** △오은혜 국제법전공 ▲**몽은희** 국제법전공 ▲**김성진** 헌법전공 ▲**구지선** 행정법전공 ▲**박세훈** 행정법전공 ▲**정진우** 행정법전공 ▲**윤대일** 민사법전공 ▲**서를거** 상사법전공 ▲**조현** 사회법전공 ▲**정순희** 부동산법전공 ▲**행정학과** △수월 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과** △황진아 범죄학전공 ▲**박국환** 경찰학전공 ▲**김미선** 경찰학전공 ▲**북한학과** △권태상 북한체제전공 ▲**이종민** 통일정책전공 ▲**신민방송학과** △신수정 신문방송학전공 ▲**김형수** 신문방송학전공 ▲**무역학과** △우단화 무역실무·운송전공 ▲**취진** 무역이론·금융전공 ▲**우위수** 국제경영·비교문화경영전공 ▲**유아교육학과** ▲**정희정** 유아교육전공 ▲**양승현** 유아교육전공 ▲**이지연** 유아심리전공 ▲**송희정** 유아심리전공 ▲**최희정** 유아심리전공 ▲**김설희** 유아복지전공 ▲**사회복지학과** ▲**정판희** 사회복지학전공 ▲**광고홍보학과** ▲**송지혜** 광고홍보학전공 ▲**김규경** 광고홍보학전공 ▲**손래** 광고홍보학전공 ▲**황보사** 광고홍보학전공 ▲**국어교육학과** ▲**유승현** 국어교육전공 ▲**한정현** 국어교육전공 ▲**화학과** ▲**민성진** 세무회계학전공 ▲**김종숙** 무기화학전공 ▲**김민진** 무기화학전공 ▲**고지은** 무기화학전공 ▲**서민선** 물리화학전공 ▲**김나영** 물리화학전공 ▲**정성진** 유기화학전공 ▲**류혁준** 유기화학전공 ▲**통계학과** ▲**정형주** 통계학전공 ▲**반도체학과** ▲**김형준** 반도체학과전공 ▲**송재훈** 반도체학과전공 ▲**정정문** 반도체학과전공 ▲**선성민** 반도체학과전공 ▲**유승용** 반도체학과전공 ▲**생물공학과** ▲**정영애** 식물생리 및 유전학전공 ▲**김준우** 동물분류 및 생태학전공 ▲**식품생명공학과** ▲**우유미** 육종학전공 ▲**김현정** 육종학전공 ▲**산림자원학과** ▲**반수홍** 환경생태학전공 ▲**생명과학과** ▲**이지형** 면역학전공 ▲**구선영** 면역학전공 ▲**조경화** ▲**허령** 설계 및 시공전공 ▲**조홍하** 설계 및 시공전공 ▲**박현철** 도시조경 및 경관평가전공 ▲**가정학과** ▲**김승이** 가정학과 소비자학전공 ▲**김영주** 식품영양학전공 ▲**생명공학과** ▲**신선철** 천연물화학전공 ▲**박나미** 생화학전공 ▲**양상환** 분자미생물학전공 ▲**수학교육학과** ▲**여혜연** 수학교육전공 ▲**이진하** 수학교육전공 ▲**컴퓨터공학과** ▲**이상홍** 정보보호전공 ▲**문지환** 정보보호전공 ▲**이정현** 컴퓨터공학전공 ▲**전기공학과** ▲**조영국** 디지털통신 및 신호처리전공 ▲**김동원** 전기기계 및 전력전자전공 ▲**장예지** 전기기계 및 전력전자전공 ▲**사상화** 전기기계 및 전력전자전공 ▲**조우근** 전기기계 및 전력전자전공 ▲**박은주** 전기전자재료 및 고전압파라자마전공 ▲**류선미** 전기전자재료 및 고전압파라자마전공 ▲**토목환경공학과** ▲**이육한** 구조공학전공 ▲**김홍수** 구조공학전공 ▲**나유성** 지반공학전공 ▲**최영남** 지반공학전공 ▲**안정은** 수자원환경공학전공 ▲**김유우** 수자원환경공학전공 ▲**건축공학과** ▲**허성태**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전공 ▲**식품공학과** ▲**최은정** 식품공학전공 ▲**안수림** 식품공학전공 ▲**박정미** 식품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이준직** 정보시스템공학전공 ▲**성정현** 산업공학전공 ▲**홍성우** 산업공학전공 ▲**기계공학과** ▲**유광성** 열및유체공학전공 ▲**이행우** 진동제어및자동화전공 ▲**게임공학과** ▲**장창** 게임공학전공 ▲**안전공학과** ▲**최혁준** 화공안전전공 ▲**전자계산학과** ▲**델보니산바** 회계·전자계산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이하나** 컴퓨터전공 ▲**이경록** 정보통신전공 ▲**김희경** 정보통신전공 ▲**김민학** 정보통신전공 ▲**의생명공학과** ▲**김민정** 의생명공학전공 ▲**정재훈** 의생명공학전공 ▲**연극영화학과** ▲**이상우** 연극전공 ▲**이인정** 영화전공 ▲**연극학과** ▲**최치애** 연극학전공 ▲**미술학과** ▲**전상훈** 불교미술전공 ▲**편수현** 불교미술전공 ▲**변현**

진 한국화전공 ▲**배순덕** 한국화전공 ▲**유지선** 한국화전공 ▲**최아영** 한국화전공 ▲**이수영** 서양화전공 ▲**신민정** 서양화전공 ▲**한의학과** ▲**양재경** 생리학전공 ▲**신재민** 내과학전공 ▲**정혜미** 내과학전공 ▲**김보람** 내과학전공 ▲**김도형** 방제학전공 ▲**박선우** 신경정신과학전공 ▲**김세원** 신경정신과학전공 ▲**의학과** ▲**강교신** 피부과학전공 ▲**김준형** 성형외과학전공 ▲**모진영** 약리학전공 ▲**지미희** 생화학전공 ▲**김대환** 재활의학전공 ▲**송현석** 외과학전공 ▲**신승일** 마취통증과학전공 ▲**전자상거래협동과정** ▲**명성재** 전자상거래 관리전공

### 영상대학원 (석사 21명)

▲**문화콘텐츠학과** ▲**김태곤** 콘텐츠기획전공 ▲**선우성훈** 콘텐츠기획전공 ▲**최유선** 콘텐츠기획전공 ▲**남상욱** 콘텐츠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학과** ▲**정재현** 영화기획전공 ▲**유보라** 영화사나리오전공 ▲**최미숙** 영화사나리오전공 ▲**김정희** 영화영상제작전공 ▲**염우성** 영화영상제작전공 ▲**공태영** 영화영상제작전공 ▲**이지은** 영화영상제작(연출)전공 ▲**최주연** 영화영상제작(연출)전공 ▲**이정숙** 영화영상제작(연출)전공 ▲**한승지** 영화영상제작(프로덕션디자인)전공 ▲**유희정** 영화영상제작(사각각주)전공 ▲**과지연** 영화영상제작(사운드디자인)전공 ▲**윤유경** 영화영상제작(사운드디자인)전공 ▲**김예림** 영화이론전공 ▲**송경원** 영화이론전공 ▲**멀티미디어학과** ▲**장우** 디지털멀티미디어전공

###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21명)

▲**이영호** 국제재무분석사 MBA ▲**박상현** 국제재무분석사 MBA ▲**하진경** General MBA(Full-time) ▲**임용문** General MBA(Full-time) ▲**기시제** 큐키리나 General MBA(Full-time) ▲**이승희** General MBA(Weekend) ▲**조재영** General MBA(Evening) ▲**지용하** General MBA(Evening) ▲**최명철** General MBA(Evening) ▲**구경용** General MBA(Evening) ▲**한기영** General MBA(Evening) ▲**김종민** General MBA(Evening) ▲**김기준** General MBA(Evening) ▲**정현열** CO-MBA(Evening) ▲**김도형** CO-MBA(Evening) ▲**윤보미** CO-MBA(Evening) ▲**김승민** CO-MBA(Evening) ▲**박주희** CO-MBA(Evening) ▲**성창화**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안치원**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여서훈** Entrepreneurship MBA(Evening)

### 불교대학원 (석사 29명)

▲**불교학과** ▲**이갑훈** 선학전공 ▲**전행록** 선학전공 ▲**김동윤** 선학전공 ▲**이화자** 불교학전공 ▲**마린백** 불교학전공 ▲**이봉우** 불교학전공 ▲**차유만** 불교학전공 ▲**한영애** 불교학전공 ▲**불교사회복지학과** ▲**김종애** 사회복지학전공 ▲**권순희** 사회복지학전공 ▲**정유진** 사회복지학전공 ▲**위정숙** 사회복지학전공 ▲**조규란** 사회복지학전공 ▲**고기람** 사회복지학전공 ▲**오정수** 사회복지학전공 ▲**윤주영** 사회복지학전공 ▲**박희숙** 사회복지학전공 ▲**한미애** 사회복지학전공 ▲**박선기** 사회복지학전공 ▲**김민준** 사회복지학전공 ▲**이호용** 사회복지학전공 ▲**유인선** 사회복지학전공 ▲**김지환** 사회복지학전공 ▲**정아영** 사회복지학전공 ▲**이상선** 사회복지학전공 ▲**최경화** 사회복지학전공 ▲**생사의례학과** ▲**김도현** 생사의례전공 ▲**김갑석** 생사의례전공 ▲**황근식** 생사의례전공

### 행정대학원 (석사 50명)

▲**행정학과** ▲**김수현** 행정학전공 ▲**김침미** 행정학전공 ▲**박인호** 정책학전공 ▲**안보행정학과** ▲**최차규** 외교교육전공 ▲**이종현** 안보정책전공 ▲**안보·북한학과** ▲**최교훈** 국방학전공 ▲**박경화** 안보정책전공 ▲**황기봉** 안보정책전공 ▲**손현기** 안보정책전공 ▲**이은철** 북

한체제전공 ▲**이호승** 통일정책전공 ▲**공안행정학과** ▲**이상기** 경찰행정전공 ▲**정재준** 경찰행정전공 ▲**조용화** 경찰행정전공 ▲**최화진** 경찰행정전공 ▲**이수영** 경찰행정전공 ▲**최세정** 경찰행정전공 ▲**이호창** 경찰행정전공 ▲**이은진** 경찰행정전공 ▲**허영범** 경찰행정전공 ▲**김춘숙** 경찰행정전공 ▲**김민수** 경찰행정전공 ▲**김상균** 경찰행정전공 ▲**권오덕** 사법행정전공 ▲**연기상** 민간경비전공 ▲**장수동** 산업보안전공 ▲**복지행정학과** ▲**이덕림** 사회복지전공 ▲**한기정** 사회복지전공 ▲**강영철** 사회복지전공 ▲**백영규** 사회복지전공 ▲**김재철** 사회복지전공 ▲**김혜경** 사회복지전공 ▲**정지원** 사회복지전공 ▲**최희희** 사회복지전공 ▲**문윤진** 사회복지전공 ▲**나영문** 사회복지전공 ▲**강희연** 사회복지전공 ▲**오미영** 사회복지전공 ▲**이지운** 사회복지전공 ▲**최문정** 사회복지전공 ▲**김태홍** 사회복지전공 ▲**박찬훈** 사회복지전공 ▲**전용** 사회복지전공 ▲**박민숙** 사회복지전공 ▲**김현수** 사회복지전공 ▲**배정희** 사회복지전공 ▲**이경미** 사회복지전공 ▲**정연자** 사회복지전공 ▲**남택관** 사회복지전공 ▲**김도경** 사회복지전공

### 경영대학원 (석사 1명)

▲**경영정보학과** ▲**임수빈** 경영정보시스템전공

### 교육대학원 (석사 110명)

▲**교육학과** ▲**윤미라** 상담심리전공 ▲**이유리** 상담심리전공 ▲**유윤덕** 상담심리전공 ▲**한승민** 상담심리전공 ▲**정혜경** 상담심리전공 ▲**이복련** 유아교육전공 ▲**김경희** 유아교육전공 ▲**조영미** 유아교육전공 ▲**김은주** 유아교육전공 ▲**이이다** 유아교육전공 ▲**제은경** 유아교육전공 ▲**고교교육학과** ▲**이민수** 윤리교육전공 ▲**김희훈** 윤리교육전공 ▲**김형준** 역사교육전공 ▲**김유란** 역사교육전공 ▲**서경미** 역사교육전공 ▲**최희미** 역사교육전공 ▲**최지희** 역사교육전공 ▲**신정승** 역사교육전공 ▲**정미역** 역사교육전공 ▲**장재기** 국어교육전공 ▲**김희희** 국어교육전공 ▲**이은비** 국어교육전공 ▲**장동준** 국어교육전공 ▲**이민지** 국어교육전공 ▲**이은미** 국어교육전공 ▲**황원기** 국어교육전공 ▲**김소연** 국어교육전공 ▲**이선영** 국어교육전공 ▲**김민지** 국어교육전공 ▲**남궁경현** 국어교육전공 ▲**이우경** 국어교육전공 ▲**김희정** 국어교육전공 ▲**이소라** 국어교육전공 ▲**이지수** 국어교육전공 ▲**박유영** 국어교육전공 ▲**공성현** 국어교육전공 ▲**김경애** 국어교육전공 ▲**황순진** 국어교육전공 ▲**권수희** 국어교육전공 ▲**김세진** 영어교육전공 ▲**임우영** 영어교육전공 ▲**박지현** 영어교육전공 ▲**전정화** 영어교육전공 ▲**황지은** 영어교육전공 ▲**이상호** 영어교육전공 ▲**백효은** 영어교육전공 ▲**김진희** 영어교육전공 ▲**한유리** 영어교육전공 ▲**소소미** 영어교육전공 ▲**정지혜** 영어교육전공 ▲**류수연** 영어교육전공 ▲**이채운** 영어교육전공 ▲**이상현** 중국어교육전공 ▲**윤지혜** 중국어교육전공 ▲**이유민** 중국어교육전공 ▲**방성민** 중국어교육전공 ▲**홍지연** 중국어교육전공 ▲**공지선** 중국어교육전공 ▲**구미영** 중국어교육전공 ▲**이정은** 중국어교육전공 ▲**이미지** 중국어교육전공 ▲**박석원** 일어교육전공 ▲**김우경** 일어교육전공 ▲**이보람** 일어교육전공 ▲**이해경** 일어교육전공 ▲**김지운** 수학교육전공 ▲**김보원** 수학교육전공 ▲**마민정** 수학교육전공 ▲**이은희** 수학교육전공 ▲**윤진영** 수학교육전공 ▲**박종걸** 수학교육전공 ▲**신지혜** 수학교육전공 ▲**주혜영** 수학교육전공 ▲**송태은** 수학교육전공 ▲**박성훈** 수학교육전공 ▲**최지영** 수학교육전공 ▲**안지영** 수학교육전공 ▲**표진희** 수학교육전공 ▲**신행자** 수학교육전공 ▲**김지희** 수학교육전공 ▲**안은정** 수학교육전공 ▲**김지경** 물리교육전공 ▲**유원하** 생물교육전공 ▲**최인혜** 생물교육전공 ▲**김유경** 생물교육전공 ▲**정명화** 가정교육전공 ▲**이정아** 가정교육전공 ▲**김성희** 가정교육전공 ▲**이유신** 가정교육전공 ▲**한슬기** 컴퓨터교육전공 ▲**이아선** 컴퓨터교육전공 ▲**김성희** 컴퓨터교육전공 ▲

이상수 컴퓨터교육전공 ▲**강신규** 컴퓨터교육전공 ▲**김승아** 컴퓨터교육전공 ▲**진분홍** 미술교육전공 ▲**안지영** 미술교육전공 ▲**김경희** 미술교육전공 ▲**김기은** 미술교육전공 ▲**노재선** 미술교육전공 ▲**김상희** 미술교육전공 ▲**이경재** 미술교육전공 ▲**권선미** 미술교육전공 ▲**류혜정** 미술교육전공 ▲**홍승욱** 체육교육전공 ▲**황용택** 체육교육전공 ▲**한은철** 체육교육전공 ▲**이휘걸** 체육교육전공 ▲**김대원** 체육교육전공

###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43명)

▲**신문방송학과** ▲**고광남** 신문방송전공 ▲**노윤구** 신문방송전공 ▲**최원영** 신문방송전공 ▲**이왕돈** 신문방송전공 ▲**이희철** 신문방송전공 ▲**이윤배** 신문방송전공 ▲**김안호** 신문방송전공 ▲**박준식** 신문방송전공 ▲**이원영** 신문방송전공 ▲**박석복** 신문방송전공 ▲**정승우** 신문방송전공 ▲**차시철** 신문방송전공 ▲**최병찬** 신문방송전공 ▲**복상철** 신문방송전공 ▲**박승철** 신문방송전공 ▲**김택근** 신문방송전공 ▲**김보조** 신문방송전공 ▲**박준기** 신문방송전공 ▲**김인기** 신문방송전공 ▲**정기윤** 신문방송전공 ▲**김영태** 신문방송전공 ▲**장철자** 신문방송전공 ▲**이병문** 신문방송전공 ▲**이영철** 신문방송전공 ▲**민승식** 신문방송전공 ▲**박세영** 신문방송전공 ▲**윤근하** 신문방송전공 ▲**이대현** 신문방송전공 ▲**이충일** 신문방송전공 ▲**이병두** 신문방송전공 ▲**김승섭** 신문방송전공 ▲**김종현** 신문방송전공 ▲**김형성** 신문방송전공 ▲**백남우** 신문방송전공 ▲**조수형** 신문방송전공 ▲**박정호** 신문방송전공 ▲**광고홍보학과** ▲**김준호** 광고홍보전공 ▲**차남수** 광고홍보전공 ▲**최창엽** 광고홍보전공 ▲**이상엽** 광고홍보전공 ▲**장유환** 광고홍보전공 ▲**정보통신학과** ▲**박종식** 정보통신전공 ▲**인쇄출판학과** ▲**조준우** 출판잡지전공

###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32명)

▲**문예창작학과** ▲**정광광** 시전문공 ▲**정용화** 시전문공 ▲**김민정** 소설·드라마전공 ▲**정원주** 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영화학과** ▲**김병관** 영상예술전공 ▲**공연영상예술학과** ▲**서경희** 공연예술전공 ▲**박상찬** 공연예술전공 ▲**김명정** 공연예술전공 ▲**박우열** 공연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 ▲**류종삼** 불교미술전공 ▲**한정미** 한국음악전공 ▲**강승의** 한국음악전공 ▲**박영민** 문화재전공 ▲**원재식** 문화재전공 ▲**예술경영학과** ▲**주연경** 조형예술경영전공 ▲**김지현** 조형예술경영전공 ▲**이승은** 조형예술경영전공 ▲**이호용** 공연예술경영전공 ▲**홍승광** 공연예술경영전공 ▲**장나** 공연예술경영전공 ▲**김수현** 공연예술경영전공 ▲**송지연** 공연예술경영전공 ▲**신혜일** 공연예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 ▲**최혜선** 미술치료전공 ▲**조주희** 미술치료전공 ▲**이경화** 미술치료전공 ▲**이은미** 미술치료전공 ▲**김소연** 미술치료전공 ▲**임효주** 미술치료전공 ▲**김수동** 미술치료전공

### 국제정보대학원 (석사 23명)

▲**정보보호학과** ▲**이종주** 정보보호전공 ▲**문상규** 정보보호전공 ▲**신종영** 정보보호전공 ▲**김민철** 정보보호전공 ▲**송승호** 정보보호전공 ▲**김태준** 정보보호전공 ▲**함수정** 정보보호전공 ▲**남용성** 정보보호전공 ▲**김홍상** 정보보호전공 ▲**박래성** 정보보호전공 ▲**송경준** 정보보호전공 ▲**박성수** 정보보호전공 ▲**노민현** 정보보호전공 ▲**소명수** 정보보호전공 ▲**김해동** 정보보호전공 ▲**홍우중** 정보보호전공 ▲**이준혁** 정보보호전공 ▲**문연관** 정보보호전공 ▲**영어통·번역학과** ▲**윤유숙** 통역전공 ▲**이태은** 통역전공 ▲**유정현** 통역전공 ▲**이재경** 통역전공 ▲**서재균** 통역전공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부 박사학위 수여자 사진을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편집자

### 2010학년도 2학기 퇴임교수 인터뷰

## “퇴임 후 학문의 실천에 힘쓸 것”

### 대학은 스펙쌓기 교육이 아니라 교양과 인문교육이 중요



강정구 교수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학자는 학문의 성역을 허물고 진실을 추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번 가을 퇴임을 앞둔 강정구(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학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수많은 감정을 뒤로하고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강정구 교수를 만나봤다.

강정구 교수는 실천성향이 강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6년에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표현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직위해제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강단에 서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

했다. 그는 1988년 우리대학 강사로 처음 강단에 서게 됐다. 그 당시를 추억해달라는 질문에 “명렬한 학생운동으로 인해 옥살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출세나 돈이 아닌 사회 정의와 평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학생들이기에 높게 평가했다”며 타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를 하게 해 좋은 성적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서울지회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도위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 등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했다.

그는 학자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참과 진실 밝히기가 아닌 그것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활동 무대를 외부로 옮겼을 뿐, 그의 신념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덧붙여 “교양과 인문사회 과목이 주가 되어야 하는 대학 강의가 스펙 쌓기 위주로 변질(變質)된 것 같아 아쉽다”며 “대학에서 직업 관련보다 전체 사회 흐름에 대해 배워 갔으면 좋겠다”고 애정 어린 조언을 남겼다. 운명(運命)과도 같은 그의 ‘냉전성역 허물기’의 실천이 앞으로든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강단이란 학생들과의 소통의 장”

### 7.4 성명 제기 북한학 입문... 학생들에게 꾸준한 독서 당부



강성운 교수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한국전쟁이 발발(勃發)하고 6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에게 북한은 동포이기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이전에 북한에 대한 연구와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강성운 교수. 그러한 필요를 깨닫고 북한에 대한 연구를 40여 년간 지속해온 강성운 교수가 이번 가을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평생을 함께 해 온 학교를 떠난다니 만감이 교차(交叉)한다”며 퇴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강성운 교수는 6.25전쟁이후 남과 북의 첫 소통의 장을 마련한 7.4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결국 그는 북한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강단에 서게 됐다.

강성운 교수는 단순히 북한의 정치·경제문제에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언어와 법 등 북한에 대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 그가 북한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강성운 교수는 “남북 사이에는 원칙에 입각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학문적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그러한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18년 간 쉬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에게 기억에 남는 학생을 묻자 “이공계생들임에도 북한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북한학에 대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이렇듯 그에게 강단이란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서 학생들과의 소통의 장이었던 셈이다. 그는 “독서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때는 오직 대학생 시절 뿐”이라며 동국대생들에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끊임없는 연구·저술을 통해 학교,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중요한 활동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2010학년도 2학기 신규교원 소개



전진규 교수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서영록 교수  
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과



최유진 교수  
영상미디어대학  
광고홍보학과



이성준 교수  
대학원  
의학과



김병철 교수  
대학원  
의학과

훌륭한 인문학의 업적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 대학을 꿈꾸는 동국대에서 일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재무/금융에 관한 지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국가의 번영(繁榮)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재무학 전공자로서, 재무/금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充足)시키고, 미래에 학생들이 21세기 글로벌 금융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관리 분야 / 성공관대 경영학 학사 / 성공관대 재무관리 석사 / 알라바마대 재무관리 박사 / 사오레곤대 조교수

안녕하십니까. 올9월부터 생명과학과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서영록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에 신입교원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바이오칩과 생물정보학 기법(技法)을 이용한 환경 발암물질의 분자독성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생명과학, 환경, 의학이 융합(融合)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세상을 비추고 선도하는 동국대학교가 되는데 일조(一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생리 / 신호전달 분야 / 고려대 농생물학과 학사 / 고려대 농생물학과 석사 / 고려대 생명공학과 박사 / 경희대 부교수

뿌리 깊은 사학전통을 이어가고 참 혁신(革新)을 선도하고 있는 동국대의 가족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미국에서의 홍보학 강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화부문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홍보학 분야 중 건강 및 보건 커뮤니케이션에 집중(集中)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홍보사업, 의료커뮤니케이션에 협동을 필요로 하는 교수님, 학생들과 활발한 학제 간 연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 분야 / 서울대 동양사학 학사 / 플로리다대 홍보 석사 / 미주리대 홍보 박사 / 플로리다대 조교수

동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 2학기부터 대학원 의학과에 신규 임용된 이성준입니다. 작년부터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동국대와 인연(因緣)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인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과를 전공하였고 그 중에서 '망막'분야를 세부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민족사학인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식구가 되어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명문을 향하는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이제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과(망막)분야 / 연세대 의학과 학사 / 연세대 안과학 석사 / 연세대 박사과정 안과학 / 동국대 일산병원 임상조교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동국대학교의 일원(一員)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전공은 신경외과에서 뇌혈관분야입니다. 동국인의 새내기로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국대학교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천만 불자와 동국인의 주치의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경외과(뇌질환)분야 / 한림대 의학과 학사 / 한림대 신경외과학 석사 / 동국대 일산병원 임상조교수



염윤권 교수  
산학협력단



최원준 교수  
약학대학  
(준비단)



한효경 교수  
약학대학  
(준비단)



권경희 교수  
약학대학  
(준비단)



진원준 교수  
약학대학  
(준비단)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처님의 대학,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현장에서 쌓았던 25년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생명 분야의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 연구의 활성화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으며,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삶의 출발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데도 열심히 정진(精進)하고 싶습니다.

산학협력 분야 /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 / 카이스트 산업공학 석사 / 카이스트 산업공학 박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설되는 약학대학 소속으로 금년 하반기에 임용(任用)된 최원준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傘下) 국립암연구소 등에서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하였고, 그간의 노력의 결과로 여러 동국인들과 새로이 인연을 맺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교양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젊음과 열정을 갖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미약(微薄)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학문과 사회에 공헌(貢獻)하는 우리 동국대학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화학 분야 / 서울대 제약학과 학사 / 서울대 약화학 석사 / 서울대 약화학 박사 / 이화여대 연구교수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을 지나 청명(淸明)한 가을을 고대(告待)하듯이 개강과 더불어 맞이하게 되어 설립니다.

제2의 도약(跳躍)을 향해 비상(飛上)하는 동국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先導)하게 될 일산 캠퍼스가 아시아의 메디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세계 속에 빛나는 동국인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제학 분야 / 서울대 제약학과 학사 / 서울대 의약화학 석사 / 서울대 약제학 박사 / 조선대 부교수

약학대학신설을 계기로 동국대 가족이 된 권경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最初)로 의약산업에 특화된 MBA과정이 개설되고 이 과정의 주임교수로 동국대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약학과 경영이 합쳐진 우리나라 최초의 Pharm-MBA과정이 동국대에 개설된 것은 약사직교육 뿐 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주축(主軸)이 되고자하는 동국대의 의지가 반영(反映)된 것이기 때문에 일산캠퍼스의 조성 과 함께 동국대의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일조(一助)를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회약학 분야 / 서울대 약학과 학사 / 서울대 물리약학 석사 / 필라델피아약학대 약학경영 박사 / 서울대 BK부교수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생약학 전공을 맡게 되어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생약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우리나라의 전통지식과 첨단과학을 융합(融合)하여 새롭게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 기초 및 응용분야입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에서 다양한 학문간의 교류 및 협력을 이끌어 내 바이오의약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養成)하고 우리나라 천연물신약 개발에 필요한 큰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산에 자리잡은 동국대학교 교정이 이제는 편한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생약학 전공 / 서울대 제약학과 학사 / 서울대 생약학 석사 / 서울대 생약학 박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연재기획 - '대학가에 부는 학제개편, 그 쟁점은 무엇인가'

# 대학가 학과 구조조정 바람,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학가의 학제 개편 바람이 거세다. 우리 대학을 비롯해 연세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들이 기존 학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과연 학제 개편의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 보고 대학별 사례를 살펴본다. 학제 개편을 둘러싼 학내외의 논란의 쟁점을 2회에 걸쳐 살펴보고, 올바른 학제개편의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연재 순서

1. 대학별 학제개편의 실태
2. 학과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지난 6월, 우리대학은 문과대와 이과대를 통합하는 기초학문대학을 신설(新設)한다는 내용의 '비전 2020(안)'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학교측이 밝힌 '기초학문대학'은 옛 문리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문 간의 융합과 학제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학과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우리대학 이외에도 현재 많은 대학들은 학과 통합과 학과제도의 전환, 학부제보다 큰 단위의 모집단위 설정 등의 학과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 대학가, 학과제 회귀 바람

우리대학을 비롯해 현재 대학가는 학제 개편 바람이 한창이다. 한국 대학들은 지난 1995년부터 학부제와 다전공제 도입 등 대학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김영삼 정부가 1997년 1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1999학년도부터 학생 모집단위를 2개 이상 학과나 학부별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전국 대학이 학부제를 부분 또는 전면도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학생 모집 단위를 복수의 학과 혹은 학부별로 정하도록 한 의 무규정을 폐지(廢止)했다.

이처럼 학과 구조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면서 대학에서는 저마다 학제개편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김현숙 한국외대 전략기획팀장은 "학과 구성원들의 요청과 교과부 정책의 완화가 맞물려서 학과제로 회귀가 가능했다"며 학과제 전환 계기(契機)를 밝혔다.

현재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제개편의 방향은 크게 학과제와 학과 통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난 15년간 학부제는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 전공 심화 교육 쇠퇴, 교수와 학생간의 소통 단절, 인기학과의 학생 몰림 현상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일부대학은 현재 학부제의 단점에 무게를 싣고 학과제로 회귀하고 있다. 학과제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건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이 있다. 건국대의 경우 문과대와 이과대를 학과제로 개편했고, 연세대는 문과대, 이과대, 사회과학대 등 주요 단과대를 학과단위로 모집했다.

건국대 입학관리팀 관계자는 "학부제로 모집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이 인기학과로만 몰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비 인기학과라도 전공자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도 자연과학대와 공과대를 학과제로 바꿔 신입생을 맞았다. 숙명여대도 2011학년도 학과제 전환을 목표로 학내 교수들과 재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덕성여대는 2011학년도부터 모든 단과대를 학과 단위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덕성여대 석대준 교무과장은 "학과제로 전환되면 학생들이 전공을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공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바람, 통폐합

한편, 또 다른 대학들은 기존의 학부제를 뛰어넘는 보다 광범위한 모집 단위의 학문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성균관대, 중앙대, 숙명여대 등은 학과를 통합하여 학부제 본래 목적을 확대(擴大)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사범대, 약학부, 의과대학을 제외한 문과대·사과대·경제학부·자연과학부 등을 통합한 문리과대학의 신설 계획을 발표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성기호 성균관대 전략기획팀 과장은 "현재 신설 계획안은 내·외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고, 학교와 관련학과의 대립이 첨예해 아직 확실치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대의 경우도 현행 18개 단과대 77개 학부를 10개 단과대 46개 학과, 61개 모집단위로 개편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어문계 학과를 학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실상 해당 전공을 축소할 것이 특

이다. 반면, 공대에는 융합공학부가 신설됐고 경제학과 광고홍보학 전공과 경영대가 합쳐져 정원 1,000명 이상의 융합대인 경영경제대학으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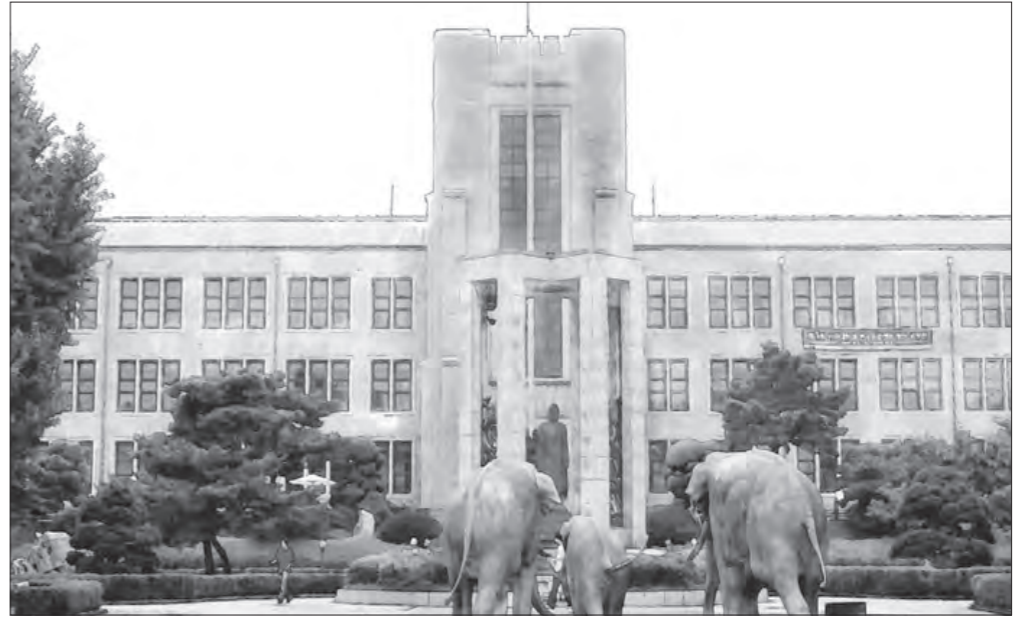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이승주 중앙대 전략기획팀 주임은 "이번 학제개편의 목적은 캠퍼스간의 중복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은 비인기학과를 축소하고 인기학과를 확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학발전 전략의 일환일 뿐"라고 설명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지난 4월 21일 비전 2020(안)을 통해 어문·사학·철학 등의 문과대와 물리·수학·화학 등의 이과대를 통합한 기초 학문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략기획본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학문대학은 문·이과 상관없이 다양한 기초 교양을 접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쇄적인 학과 중심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융합 학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 대해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학교측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 학제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에 학제개편의 바람이 불면서 일부 대학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마찰로 학제개편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캠퍼스 간 학과 통폐합을 진행한 중앙대의 경우, 학과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학생이 한강철교와 교내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고 결국 퇴학처분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성균관대도 학과 통폐합 내용을 담은 '비전 2020'의 발표 후,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허남결 교수회장은 "개혁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 아래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에게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영문과 장시기 교수도 "인문과 학과 자연과학과 같이 전혀 학문적 연관성



▲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대학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제개편의 본질과 다른 이해 관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없는 다른 학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장시기 교수는 또 "대학의 구조조정은 특정한 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우위에서 통폐합되는 구조조정이 아닌 학문 간 소통을 전제로 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기초학문대학 신설은 학문의 특성과 학문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기초학문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일부대학에서 설치했던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전공 선택 전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결국엔 경영학이나 경제학 전공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신설되는 통합학부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학부제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회귀한 학과제에 대한 시선이 좁지만은 않다. 분과학문보다 융합학문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 개별학문 중심의 단일 학과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범대의 A교수는 "스토리텔링과 같이 융·복합 기술이 점점 더 많이 필요로 되는 시대에 19세기에 등장한 근대적 학과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현실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과대 B교수 역시 "학과제는 학문 간 소통하기 힘든 자기중심의 학문체계"라며 학과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학은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견인차이자 상징이었다. 이 때문에 대학의 설립과 규모의 확대는 진보와 발전을 의미했다. 이는 대학의 양적 팽창(膨脹)을 불러왔다. 그러나 양적으로 팽창한 대학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산부인과가 불황을 만났던 것처럼, 그 뒤를 이어 대학이 불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때문에 각 대학들마다 기존의 학제에 한계를 느끼고 더 큰 경쟁력을 얻기 위해 학제 개편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상식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대학은 과도기적인 시점에 놓여있다. 학부제에서 학과제로의 회귀와 학부제에서 더 큰 단위의 학과구조로의 전환 모두 각 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 나름의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지금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대학의 구조 조정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하느냐이다.

이진원 기자 jly88918@dongguk.edu

## 제5회 이과대학 대학생 연구 프로젝트 발표 대회

이과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술능력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 5회 이과대학 연구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cience.dongguk.edu 참조)

- 아 래 -

1. 참가자격: 동국대학교 이과대학 재학생으로서 개인별 또는 3명 이내 팀을 구성하여 지원
2. 프로젝트 주제: 전공과 관련된 자유 주제 선택
3. 신청방법: 연구 프로젝트를 지도할 교수선정 후 개인별 접수
4. 논문기회: 작성 제출: 2010년 7월 26일부터 - 2010년 9월 17일까지
  - (1) 제출물: 참가신청서 1부, 논문기회서 1부
  - (2) 제출처: 방문접수(이과대학 학사운영실) 또는 E-mail 접수 (e-mail : plh4@dongguk.edu)
  - (3) 논문기회서는 한글 또는 MS-word로만 작성할 것
  - (4) 참가 신청서만 소정양식에 의함, 논문기회서는 자유롭게 작성하고 분량은 A4 3~10매(표지 제외), 참가신청서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http://science.dongguk.edu/)
  - (5) 논문기회서 심사 통과자에게 연구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정의 연구 수행비를 지도교수에게 지급.
5. 시상내역
  - 최우수상(1팀): 1,000,000원
  - 우수상(1팀): 700,000원
  - 장려상(1팀): 500,000원
6. 문의사항: 이과대학 학사운영실(2260-3749)

## 이 과 대 학 장

## 2010년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2010년 8월30일(월) ⇒ 9월18일(금) (3주간)
2. 신고 대상
  - ① 일반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② 2010년도 편입생, 입학성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③ 2010년도에 전역 후 복학한 학생
3. 신고 방법: U-drims 또는 예비군 연대본부 방문(본관 3층)신고
4. 신고 시 지참물 / 관심사항
5. 기타 상세 문의: 예비군 연대본부 (☎2260-3047-8)

동국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장

# 2010 동국대학교 취업박람회

- 일시: 2010.9.3(금) ~ 9.7(화)
- 장소: 본관 중강당(9.3) 및 만해광장(9.6~7)
- 주관: (주)한경디스코
- 협조: 졸업준비위원회

## [삼성그룹 채용박람회] 9월3일(금)

삼성SDS  
삼성물산(건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생명

CJ그룹

그랜드 힐튼 서울

네파워코리아

장원교육

벨코웨어주식회사

DK UNC 그룹

금호석유화학

메트라이프생명

까시마

토마토시스템

DISIR

뉴욕라이프

삼부토건

디엠에스

하나투어

HSBC은행

대림산업

삼성생명

리바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KG케미칼

대한민국 육군

샘표식품

보광웨미리마트

한양이엔지

LG디스플레이

대한민국공군

신텍

추성엔지니어링

한진해운

LG전자

대한민국해군

아모텍

에스에프에이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나항공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현대자동차

SGS코리아

동아제약

에듀스파

케이씨텍

호텔인턴닷컴

계룡건설

두산그룹

이랜드리테일

중외제약

효성

교원그룹

두산정보통신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코리안리재보험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간화선 국제 학술 세미나 성료(成了)

## 불교학술원 개원 이래 첫 국제학술대회 ... 국내외 학자 - 선승 한자리에



우리대학 불교학술원이 주최한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달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불교의 간화선 수행법을 널리 알리고 면면히 이어져온 간화선의 체계화와 국제화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간화선 비교 조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들과 한국의 대표적 선사들이 참여해 간화선에 대한 교류를 나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간화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과 간화선을 실제로 수행해 온 수행자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불교학술원이 개원한 이래 첫 국제학술

대회인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6월 부임한 로버트 버스웰 불교학술원장이 제안해 성사됐다. 로버트 버스웰 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학 분야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회식에서 자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간화선에 대해 잘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간화선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치사(致辭)했다. 또 정련(우리대학 이사장)스님은 "간화선의 실상을 비교 조망하고 한국 간화선의 현주소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한국 간화선이 세계를 비추는 대법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기조발제는 해국(전 전국선원수자회 대표)스님과 수불(안국선원선원장)스님이 각각 '간화선의 유래와 수행방법'과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해국스님은 "삼처전심이 간화선 역사의 시작"이라며 "간절히 참구함으로써 돈오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불스님은 "신심(信心), 분심(憤心), 의심(疑心)은 반드시 필요한 삼요인데 그 중에서도 활구의심이 간화선 수행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이어 간화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미산(중앙승가대 교수)스님은 '간화선의 3요제와 37보리분법의 5근·5력에 대한 비교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종호(불교학부 교수)스님과 혜원(불교학부 교수)스님은 각각 '화두(話頭)의 내재적 구조 일고(一考)'와 '선종(禪宗)에서의 수선(修禪)의 전개와 간화선(看話禪)'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간화선에 대한 발제도 있었다. 코지마 타이잔(중국 무한대학 명예교수)스님과 시지루(미국 포모나대학 교수)스님은 각각 '일본 선계(禪界)의 현황과 전망'과 '부처를 염(念)하는 이는 누구인가? 허운(虛雲)과 현대 중국 불교의 화두 참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외에도 총 14명의 발제자가 발표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대한불교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 화제의 논문

#### 박사논문 최초로 금강경을 다룬 요경스님

### "금강경 연구에 나침반을 제시하다"



가을학위수석에서 '금강경'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요경스님이 집필(執筆)한 '대한불교조계종 표준본 금강경 연구-한문 교감과 한글번역을 중심으로'가 바로 그것이다.

논자인 요경스님은 "2007년부터 2년간 불학연구소 금강경편찬 담당연구원으로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며 "그것이 이번 논문을 쓰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이번 논문을 작성한 계기를 밝혔다.

이번 논문은 금강경을 단독 주제로 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조계종 표준 금강경 한문·한글본 편찬(編纂) 과정에서 논의됐던 한문본의 교감과 한글본 번역의 특징 및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모색한다.

요경스님은 논문의 주제인 금강경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이라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유통된 '금강경' 한문본들은 경문 불일치가 다수 발견됐으며, 한글로 번역된 경전 또한 존재하지 않아 쉽게 읽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요경스님은 "경전이 쉽게 읽히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표준 금강경편찬에 일조(一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논문이 단순히 편찬 후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요경스님은 이번 논문을 통해 "금강경 표준화 작업 중 발생했던 문제점을 나타내 유사(類似)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요경스님의 이번 논문은 금강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정체다. 앞으로 금강경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에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요경스님. 그녀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금강경을 연구하는 다음세대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 식민통치에 활용된 일제의 종교정책 첫 논의

### 일본학원, '조선총독부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대응'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지난 8월 27일(금)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대응'이란 주제로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한 일 양국에서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연구한 6명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먼저 국민대 류미나 교수는 조선총독부가 1911년 6월 15일에 성균관에 설립한 경학원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경학원이 1920년대에는 제2의 3·1독립운동이 발발하지 않도록 조선인 교화를 추동(推動)하는 기구로 자리 잡아갔다"고 주장했다.

한국국학진흥연구원 유교문화박물관 김순석 관장은 "일제는 본산(本寺) 주지들을

임명해 친일을 꾀했다"고 말했다. 김순석 관장은 "결국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 불교정책은 조선왕조가 500백년 동안 실시하였던 역불정책보다도 심하게 불교계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진구 호남신학대 교수는 신사참배를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개신교의 갈등은 미션스쿨의 폐교를 초래했으며, 개신교 내부의 갈등은 해방이후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가와세 다카야 교토부립대 교수는 '조선사 편찬사업(1922-38)'에서 일본 측이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간주하는 데에 대해 최남선 등 조선 지식인들은 단군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며 논쟁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1930년대 '심전개발운동' 정책에 동원되어 '일선동조론'을 추진하고 선전했다. 조선 지식인들의 저항과 협력 양상(樣相)은 식민지에서만 나타나는 '양면성'이라고 파악했다. 스가 고지 고쿠가쿠인대 교수는 조선신궁에서 모셨던 일본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에게 다빈주 제국통합의 시원이라는 성격이 새롭게 부여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에서는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종교와는 무관한 세속적인 성격도 띠는 등 모순된 숭배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모모야마가쿠인대 아오노 마사아키 교수는 '심전개발운동'에는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신사신앙과 '종교부흥'을 통



한 조선인의 신앙심 향상이라는 '이중구조'의 성격이 내재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종교(類似宗教)'는 '미신'으로 치부되어 국제관념에 위협시되는 대상으로서 탄압받았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일제강점령 100년을 맞는 해이지만 식민지배 상황에서 각 종교계가 놓인 처지가 한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교화에 중

교를 적극적으로 활용(活用)했음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조현범 연구원이 지적하듯이 종교계의 "근대와 식민의 중첩 경험"이 구체적으로 조명(照明)되지 못했다. 앞으로 종교계의 식민 경험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친일'과 '반일'의 차원을 넘는 논의로 이끌 것인가라는 과제도 남겼다. 이현정 일본학 연구소 전임연구원

##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기자가 되리라"

"어둠속에 내가 빛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빈 하늘에 몇 번이고 나는 질문하네. 지나왔던 것 보다 갈 길이 멀다. 세상살이, 배우고 또 배울수록 어렵다...내가 택한 이 길, 계속해 달리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더 콰이엇의 '꼭잡아'라는 노래가사다. 동대신문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노래는 나에게 별 의미 없이 다가왔다. 하지만 신문사에 들어온 후 기자라는 꿈을 갖게 되면서 이 노래는 내 애청곡이 됐다. '기자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지니고 있던 내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이유에서다.

항법(航法)장치가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 사람들은 깜깜한 밤하늘에 뜬 밝은 별을 보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판가름했다고 한다.

기자는 대중들에게 깜깜한 밤하늘의 별 역할(役割)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철저히 감춰져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眞實)을 파헤쳐 보도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밤하늘의 별처럼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의 끝에는 항상 회의감(懷疑感)을 맛보곤 했다.

하지만 이번 탈(脫)수습을 계기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른 동기들과 달리 신문에 들어와서야 기자라는 꿈을 갖게 됐다. 고로 기자를 위해 준비해온 기간이 고작 6개월에 불과(不過)하



다. 말 그대로 이제 겨우 탈 수습을 한다. 내 인생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정한 기자가 되기까지 내 인생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 또 기자로서 생활하다보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노래가 사처럼 내가 택한 이 길을 계속해서 달려 나갈 것이다. 어두운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별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상원 기자 sangil@dongguk.edu

### 탈수습기(脫修習記)

## '인간' 생각할 수 있는 휴머니스트 기자 될 것



어릴 때 꿈꿔온 허무맹랑한 꿈을 차치(且置)하자면 나의 첫 장래희망은 기자였다. 사람들은 기자에 대해 차갑고 건조한 말투로 사실만을 전 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일쑤다. 그러나 난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다. 무슨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매길 수 없는 사람의 가치를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의 목표였고 꿈꾸는 기자상(像) 역시 같았다.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기초로 사람 냄새나는 기자를 꿈

꿨다. 그렇게 한 길만 보고 달려온 난 동대신문사를 통해 기자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고 사람다운 기자라는 가치를 내걸고 기자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 학기동안 경험해온 기자생활은 열정만으로 담낼 수 없었다. 취재를 다닐 때는 긴장해서 버벅댔고 취재 보고를 할 땐 중요한 사실들을 빼먹어 꾸중 들었다. 사람다운 기자라는 목표는 허울뿐이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도구도 갖지 못한 채 무작정 폼과 이상만을 내세웠던 것이다. 유려한 문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자를 꿈꿨으나 그런 나는 없었다. 수습기자 최익래는 서울의 밤하늘처럼 별 볼 일 없었다. 연 발하는 실수엔 선배들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기자라는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 잘못된 것일까 하는 의문까지 날 괴롭혔다. 그러던 중 난 선배들의 탈수습기를 보고 놓치고 있던 사실을 상기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은 모든 선배들 역시 겪었던 성장통인 셈이었다. 선배들 또한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런 성장통을 충분히 겪었기에 기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자각한 난 특유의 낙천성으로 다시 한 번 어려움에 도전했다. 기자 생활은 마치 블랙홀 같아서 한 걸음 내딛을수록 점점 나라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블랙홀 속에서 내 일을 찾고 역할에 충실하게 그리고 사람 냄새나게 기자 생활을 해낼 것이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화제의 책



#### 김대중 자서전

지은이 김대중  
펴낸곳 삼인  
55,000원  
1348쪽

사후에 출판하기를 원했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의 유지에 따라 서거 1주기를 맞아 『김대중 자서전』이 발간(發刊)되었다.

DJ는 노벨상 수상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 현대사의 지도자로서 그의 자서전이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일제치하이던 1920년대부터 좌우이념대립이 극심했던 해방공간을 거쳐,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 군부독재와 민주화투쟁, 5·18과 6월 항쟁,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요 고비를 온몸으로 건너왔던 DJ의 삶과 투쟁을 『김대중 자서전』을 통해서 만나본다.

자서전에는 평생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그의 삶과 철학, 아울러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다.

### 시대를 고뇌했던 행동하는 양심, 그 생애의 기록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독재와 맞서 한 평생을 살다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으로 듣는 파란만장한 정의의 항쟁사

DJ가 옥중에서, 망명지에서, 연금된 자택에서 구상한 여러 정책과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그리고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퇴임 후 서거 직전까지 그동안 구상한 대한민국 정책 실현의 과정과 결과를 이 자서전에 고스란히 담았다.

DJ의 굴곡진 삶을 통해 20세기 한국 현대사를 되짚어 보고 21세기를 살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야사(野史)처럼,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서전은 참회록과는 달리 자신의 인생역정을 기술한 자기를 널리 알리는 글이다. 그래서 자신의 내보이고 싶은 것만 서술하고, 있었던 사실을 과장하기도 하며 이를 미화시키기도 한다. 자서전에서 엄격한 객관성을 기대하기란 무리다.

DJ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 지도자들은 자라 일변도의 자서전보다는 참회록을 남겨 후대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觀點)에서 보자면 『김대중 자서전』에는 아픔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 역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온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이 서려 있다.

일평생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위해 몸바쳐 일한 DJ가 생애 마지막 자서전을 통해 남기고 간 말들은 현 정권과 국민에게 앞으로의 삶과 행동에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여러분께 간곡히 피땀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 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 『김대중 자서전』 2권에서

한편 『김대중 자서전』은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의 출간 제의에 따라 현재 일본어로 번역중이며,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중국·독일의 출판사들과도 번역 및 출판에 대한 협의의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만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 이유기 교수의 독서산책

#### ‘사람’이고 싶었던 불꽃



#### 전태일평전

지은이 조영래  
펴낸곳 들베개  
9,000원 / 320쪽

전태일.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청계천 피복 공장 노동자. 여섯 살 무렵부터 시작된 거지 생활, 신문팔이와 구두닦이를 거쳐 열일곱 살에 평화시장 피복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업. 그는 밑바닥 인간이었다. 그의 말대로 ‘주인 있는 게 보다 천한 인간’이었다.

그는 1948년에 태어나서 스물세 살 되던 1970년에 노동자도 사람임을 부르짖으며 분신(焚身) 자살하였다. 우리는 오해하기 쉽다. ‘희망이 없는, 지지리도 불쌍한 어떤 청년이, 자신의 절망을 못 이겨, ‘욱!’ 하는 마음으로 제 몸에 불을 질렀겠지.’라고. 그럴까?

아니다. 그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밖에는 올 줄 모르는 우리들의 비정(非情)한 가슴을 두들긴다. 그의 죽음은 동학혁명이나 삼일운동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1960년대 말 청계천 피복 공장의 노동 환경은 참혹(慘酷)하였다. 작업장은 8평 정도. 작업 기계가 딱 들어찬 비좁은 공간에서 32명 정도의 소년 소녀들이 일을 한다. 대개가 열여덟 살 정도의 나이. 심지어 열서너 살의 소녀들도 많았다. 천장 높이는 1.5미터 정도. 기름 냄새, 땀 냄새, 옷감을 자를 때마다 생기는 먼지 속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식 없이 일해야 한다. 1970년 당시, 보조는 월 1,800원에서 3,000원, 미싱사는 7,000원에서 25,000원, 재단사는 월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았다. 열서너 살짜리 어린 소녀들이 받는 하루 70원짜리의 보수로는 점심도 먹을 수가 없었다. 풀빵 몇 개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작업하였다.

전태일은 혼자서 근근이준법을 공부하고 ‘바보회’를 조직하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저항하였다. 노동청과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비인간적 실태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문 기자들마저 들은 체하지 않았다. 협박과 회유 때문에 동료들마저 기운이 꺾여만 갔다.

아무리 두드러도 열리지 않는 닫힌 문 앞에서, 전태일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의 고통 때문에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한창 뛰놀아야 할 나이에 시들어 가는 어린 여공들이 사람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짓밟히면서도 굶질거리려는, 우리들의 노예 근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자후(獅子吼)였다.

1970년 이후의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투쟁(鬪爭)은 전태일이 과거의 우리 자신이 ‘노예’였음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태일을 독기 품은 혁명 투사로 보는 것은 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뼈저리게 체득한 ‘순수’한 사상가였다. 늘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며 소설 습작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 많고 마음 어린 청년이었다. “나는 ...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공책에 적힌 글이다.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도 병들어 있다는 유머러스한 모습이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비천(卑賤)해 보이는 전태일에게서 성자의 모습을 꿰뚫어 본 이는 조영래 변호사였다.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던 1974년에 이 책을 썼다.

우리는 전태일도 기억해야 하지만, 조영래 변호사의 거룩한 삶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양교육원 교수)

### 이주의 책



#### 펜 끝 기행

지은이 최호철, 박인하  
디자인하우스  
15,000원  
279쪽

「펜 끝 기행」은 ‘만화’라면 죽고 못 사는 두 남자가 함께 한 여행의 기록이다. 한 대학의 만화창작과 교수로 있는 두 사람은 ‘동료 교수’로서 제주도로 교수 연수를 간 것을 시작으로 ‘트래블 메이트’가 됐다. 만화를 시작하기 전, 최호철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고 박인하는 원고지에 글을 썼다. 이들이 만화라는 유쾌한 지점(地點)에서 만나 백지(白紙)의 세계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열정(熱情)보다 뜨거운 그들의 잉크로, 기점(起點)은 바람 타는 섬, 제주도이다.

### 펜끝으로 흠쳐본 세상의 풍경이야기

이 책은 만화라면 죽고 못하는 두 남자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리고 쓴 책이다. 지난 여름 훌쩍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손에 들어볼 만 하다.

이곳에서 그들은 아직도 화산이 용솟음치는 화산섬의 열기(熱氣)에 놀라고, 휴양지의 낭만 이면(裏面)에 있는 섬의 일상을 흠쳐본다. 다음은 일본,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함께 떠난 첫 번째 여행지이다. 일본의 만화 박물관과 각종 캐릭터 샵에서 발생(發生)한 그들의 ‘만화쟁이’다운 에피소드 또한 소소한 웃음을 자아낸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유럽으로 날아간다. 먼저 이탈리아. 언제나 휴일 같은 도시 로마를 오드리 햅번의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본다. 자신의 발자국을 그림으로 남기는 최호철의 크로키를 보고 싶노라면 나도 어느새 로마의 거리를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유럽여행의 종착점은 스위스다. 이탈리아에서 바로 알프스 산맥으로 넘어가는 길은 황홀의 연속이었다.

중국에서는 들어서자마자 대국의 포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끝없이 넓은 대륙답게 한 발짝만 움직여도 이전과는 다른 풍광(風光)이 펼쳐진다. 여행기는 독도와 울릉도에서 종점(終點)을 찍는다. 거친 파도로 인해 근처에만 가도 울렁울렁 배 멀미를 피할 수 없는 울릉도와 외로운 섬 독도와의 대화를 펜 끝으로 나타냈다.

동해를 바라보며 작별을 고하는 이 여행기는 백지 위의 수다이다. 최호철이 포착(捕捉)한 장면과 박인하가 풀어내는 일화가 펜으로 뒤엉켜 있다. 발로 뛰고 손으로 그린 그들의 여행은 신선한 시각과 만화적 표현의 산물이다. 끝나가는 여름,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라. 이들이 선사하는 유쾌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으니,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 “의심보다 관심을 통해 진정성 있는 기자가 될 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 의심(疑心)하지 않는다.” 늘 의심하는 것에 익숙한 나에게, 조지 허버트의 이 말은 큰 경각심(警覺心)을 불러 일으켰다.

이 말을 봤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의심하는 것인지, 단순히 비판을 위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대신문사에 들어오기 전, 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의심하기에 급급했고, 어떤 일이든 내 생각이 곧 답이라고 여겼다.

막연히 자기주장이 강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기자와 어울린다고 생각했기에, 나에게 있어 기자라는 직업은 더없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로 활동하면서,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내가 가진 생각만으로는 기사를 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전조사와 보충취재를 계속해야만 했다. 취재원 앞은 매순간 나의 무지(無知)를 증명하는 자리였고, 그런 난 의심할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득 어차피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의심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난 의심(疑心)보다 관심(關心)을 가지도록 부단히 생각하고 노력했다. 그럴수록 취재는 더욱 즐거워졌고, 그렇게 나온 기사는 더욱 진정성을 찾아



가는 것 같아 만족감을 느꼈다. 의심보다 관심이 중요하다 것을 깨닫는데 내 수습기간을 쏟아 부었다.

앞으로 동대신문사의 기자로서,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막연한 의심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기자. 이것이 지금 내가 꿈꾸는 기자고, 앞으로 내가 이뤄갈 기자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 탈수습기(脫修習記)

### ‘세상과의 조우’할 수 있는 기자가 되리라



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됐다. 분량이 아무리 짧더라도 대중에게 내밀어질 글이라면 한 문장, 한 글자에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동대신문사에 입사(入社)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가슴에 새긴 배움이다. 그 이후로는 기사 외에 다른 어떤 글을 쓸 때도 이 말을 항상 염두(念頭)에 두고 있다. 기자로 일을 하기 전까지의 나의 글은 그저 내면(內面)의 상대만을 드러내는데 급급(急急)했다. 세상이 내 글을 읽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글을 쓰며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대중이 읽을 글을 쓰는 사람의 글은 ‘자기표현의 발현(發現)’이 아니라 ‘세상과의 조우(遭遇)’여야 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의 글은 천지차이다. 나는 기자가 되고 나서야 그 정의(定義)를 알게 되었다. 내가 언어(言語)를 던졌을 때, 그 메시지의 파장(波長)에 대해서 한 시도 빼놓지 않고 숙지(熟知)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창(窓)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나의 마음이 집이다. 나는 동대신문이라는 출발(出發) 선상(線上)에서 있다. 이곳을 기점(基點)으로 내가 앞으로 걸어 갈 곳은 ‘길’이 아니라 ‘글’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문자와 함께 내딛는다. 이토록 글과 함께 하는 생애를 동대신문에서부터 걸어간다.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정 태 섭**  
역사교육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채원배와 양수명**

어느 사회에서나 진보와 보수는 갈등한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았던 아름다운 예도 있다. 초대 북경대학교장 채원배(蔡元培)는 무술번법의 실패 후에 관직을 사임하고 혁명운동에 참가하던 중 독일 유학을 떠났다. 신해혁명의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중화민국의 초대 교육총장이 됐다. 그러나 군벌 원세개의 전횡에 실망하여 다시 유럽 유학을 떠났다. 원세개 사망 후에 귀국해서 1916년 초대 북경대학교장이 됐다. 때는 바야흐로 1915년 상해에서 창간된 계몽잡지 『신청년』에 촉발된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신문화운동'을 펼쳐나갔던 시기였다. 채원배는 『신청년』의 정쟁한 필진을 북경대학의 교수로 초빙했다. 진독수, 이대조, 호적 등이었다. 더불어 채원배는 특이한 인물 두 사람을 진독수 등과 함께 북경대 교수로 초빙했다. 양수명(梁漱溟)과 유사배였다. 진독수 이대조 등은 일본 동경 유학생 출신이며 호적은 미국에서 공부했다. 모두 서양의 신학문을 공부했으며 『신청년』을 통해 대중적인 명성을 얻은 진보파였다. 이에 비해 양수명과 유사배는 학력도 없고, 전통한학을 공부한 인사였다. 당시 중국은 서양의 근대문명 앞에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 무술번법 이래 중국 전통 학문의 상징인 유교는 중국 낙후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었다. '신문화운동' 시기에 유교비판은 절정에 달했다. 신문화운동은 5·4운동의 사상적 토대로서 꽃을 피웠다. 북경대 교수로 초빙된 『신청년』 필진이 서양학문을 가르쳤고 그 영향을 받은 북경대 학생들이 5·4운동의 주역이 됐다. 5·4운동은 정치적으로도 승리했기에 사상학술계의 대체는 서양학문, 혁명노선이었다. 그런 시대 풍조 속에서 양수명은 1924년 북경대학을 사임할 때까지 인기 없는 강좌를 꾸려나갔다. 세월이 흘러 공산주의가 중국을 지배하던 시대, 그 중에서도 낡은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더욱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현대 중국의 격동의 역사 속에서 외롭게 탄압받던 양수명은 오늘날 극적으로 재평가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대상이 됐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개혁개방정책으로 불과 40년 만에 세계경제의 강자로 성장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의 성공요인으로서 유교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와 성찰로, 유교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19세기말 이래 서양근대의 학술에 압도되었던 중국에서 유교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유교를 지키고자 했던 '현대 신유학'의 아버지가 바로 양수명이다. 도도한 서양·혁명·진보의 물결 속에서 채원배가 양수명을 북경대 교수로 초빙하지 않았다면 '현대 신유학'은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양에서 공부한 혁명가 채원배가 전통 한학자 양수명을 북경대학 교수로 발탁했던 고사에서 많은 것을 느낀다.



**신 진 호**  
전산과 96졸  
GS홀쇼핑 홍보팀장

**학보 교환하던 시절**

필자가 신입생 시절, 과 사무실 불편함에 쌓인 학보는 인기의 척도였다. 타고 학생과의 단체 미팅 후라면 학보 우편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됐다. 주소가 적힌 띠 안쪽이나 신문 안쪽에 붙여진 메모지를 돌려 읽었다. 기껏해야 날씨가 좋다, 시험기간이라 힘들다 정도의 뻔한 메모지만 행간에 담긴 애정과 진의를 잡기 위해 머리를 굴리던 일은 참으로 정감 있는 기억이다. 학보 교환 문화는 휴대전화기 없던 시대가 만들어 낸 문화다. 개인통신기가 대중화(大衆化)되기 전이라 부모님 눈을 피해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대학생 신문에 대한 자신감도 학보 교환 문화에 일조했다 싶다. 민주화, 통일 등 대학의 현실 참여가 활발하던 시기여서인지 사회적으로 대학생의 위상이 작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 하면 취업과 구직난을 떠올리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서 대학생의 자긍심은 많이 위축된 게 아닌가 걱정이다. 후배 독자님과 만나는 지면에 느닷없이

옛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오늘의 대학생들이 좋고 편리(便利)한 시대에 산다는 얘기를 하고 과해서도 아니고, 선배의 고루한 무용담을 늘어놓음도 아니다. 앞만 보고 달러가는 각박한 생활의 틈바구니에 학교로부터 받은 원고 청탁 전화가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했을 뿐이다. 필자는 홍보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언론사와 온라인 미디어의 취재를 받고 정보를 분류해 커뮤니케이션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한다. 1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언론과 기업 홍보 환경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처음 홍보실에 발을 들였던 때는 대부분의 일간지가 24면을 발행(發行)했다. 최근엔 본지 40면에 색선까지 56, 72면까지가 허다하다. 아침 일찍 스크랩하던 신문의 수도 10여종에 불과하던 게 최근엔 20여종에 온라인 매체까지 40여종에 이른다. 그야말로 정보(情報)의 홍수 속에 모든 것이 리얼타임으로 소통 가능한 시대에 기업 홍보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거나 아니면 재앙에 가깝다.

홍보 뿐 아니라 기업의 모든 직종이 과거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다루고 초 스피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다. 후배들은 앞으로 더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빠른 처리 능력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누구나 정보에 접근(接近)할 수 있고, 누구나 뛰어난 처리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진정 빛을 발하는 인재는 깊은 생각과 통찰력, 그리고 진정성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최근 기업 경영자들이 인문학 강좌에 몰리고 앰다튀 창조경영을 화두로 제시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학보 속에 메모를 넣어 교환하던 그 시절은 확실히 지독하게도 느리고 답답할 수 있지만 기대와 상상력이 자리할 여유(餘裕) 공간이 충분했던 시기였다.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동문 모임이지만 일단 만나면 서로 헤어지지 못해 1차, 2차를 전전하게 되는 건 지독히 느리고 답답하던 그 시절이 그림기도 하고, 지금이야말로 그 시절의 추억이 정말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만평**



백 선 아 기자 amy@dgu.edu

**학생칼럼**

**노 효 선**  
철학과 4학년

**입학정원관리시스템**

7월, 학교에서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구성원들은 동국의 발전을 원하고, 약대 유지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대 유지'를 위해 단과대를 이전하거나 학과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학과 구성원들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목적과 평가 기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하지만 약대 유지라는 올해의 특수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 근본적인 폐해를 따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약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不當)하다. 이번 결과는 약대 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들, 특히 매해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집중 대상이 됐던 기초학문을 공부하는 학과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지

표가 객관적이기에, 동국의 어떤 학과든지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했다. 그러나 약대의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약대에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하위학과와 정원의 인원을 줄여 배정한다. 이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과를 지정(指定)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학과를 지정하는 것이다. 즉 학교 스스로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과에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하위학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도 없이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작년 학교당국은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농성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며 소통의 부재를 인정했고, 해당 학과 구성원-학교 간의 '기초학문발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초학문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을 위해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학교의 시도도 없었다. 학교 당국은 학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초학문발전위원회의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학과 정원 감축의 공문이 수시 모집 시기에 거의 근접한 7월 말에 되어 서야 전달된 점으로도 미뤄 볼 수 있듯 해당 학과들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학과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학교 당국이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 의심(疑心)스럽다. 진정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는 이번 사안에 관해 해당 학과 구성원들과 전면 재논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통기구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꿀로 만든...

# 동목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목식품** 부산 약용근자원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인 중)  
문의 전화: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gokgo.com

**동목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목고는 천연물 재료인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어약자

## 초코 동목고

**자매품 초코동목고**는, 동목고를 섭취하는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목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목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목고"와 "초코동목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시론 권내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 역사 교과서의 수난

현 정부는 출범동시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갔다. 해당 교과서는 역사학계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것으로 내용상의 오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돼 왔다. 간간히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합법적인 검정 절차를 거쳐 출판된 교과서를 역사학계의 동의 없이 정권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수정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관점을 문제 삼아 권력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수정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역사 교과서의 수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역사 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시행도 되기 전에 누더기가 됐다. 역사학계는 오랜 논의를 거쳐 한국사와 세계사를 합치고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 중심의 '역사'를,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는 한국문화사와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하여 역사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한국문화사를 없애고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였다. 자국사를 전면으로 내세운 과목이 전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뒤이어 고등학교 역사의 명칭을 '한국사'로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오랜 고민의 산물을 시행도 하기 전에 뒤엎는 정부는 검정중인 교과서를 또 바꾸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최근엔 다시 이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이 논란이 됐다. 근현대사가 내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과서 검정에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빠진 것이다. 교육 과정이 기형적으로 왜곡된데 이어 교과서 검정까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비역사 전공자들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사학계의 함의를 뒤튼 교육과정 개편을 거쳐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사 교과서의 성립과 검정까지 역사 교과서의 수난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우리 역사를 전혀 학습하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는 등 역사교육은 앞으로 파행을 거듭할 것이다. 역사교육 강화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교과서나 교과과정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역사교육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올 해는 일제 강점 100년이 되는 해지만 한일 간 역사 분쟁은 수사의 진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공세도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역사교육의 약화와 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인식 빈곤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재의 역사학계를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도 스스로 역사교육을 특정 가치관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공 구조물에 갇힌 강물이 생명력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 파행을 거듭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정상화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사설

### 이명박 정부, 엄격한 검증 통해 후보자 내놔야

8.8 개각(改閣)으로 내정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낙마했다. 그동안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지도 모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해 국민들의 불신(不信)을 샀다. 그가 처음부터 공사(公私) 구분을 엄격히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였다면 현재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또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惡化)돼 결국 사퇴에 이르게 됐다. 이렇듯 세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것은 이들의 도덕적 결함과 끊임없는 말바꾸기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不實)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다. 이 대통령이 8.8 개각을 앞두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후보자의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번 인사를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사권을 신중히 행사(行使)해야 한다. 또 청와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앞서 도덕성과 준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것은 후임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이다. 정부는 더욱 엄정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후보를 내놔야 한다. 이번 사태가 다음 인선을 앞두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 학기가 시작됐다. 지난 방학동안 학내 곳곳에서 교육환경 개선(改善)을 위한 공사가 진행돼 우리대학의 변화(變化)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인프라 부분의 변화뿐 아니라 이번 학기에는 바이오시스템대학의 일산캠퍼스 이전(移轉), 입학정원 관리시스템, '미래비전 2020(안)'에 기반한 기초 학문대학 신설 등 다양한 학내 현안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대학은 변화의 중심(中心)에 서있다. 이럴 때일수록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학교의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난 학기 대학당국은 바이오시스템 대학 학생들에게 일산캠퍼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바이오시스템 대학 소속의 학생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反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지속되서는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 당국은 구성원들에 대한 여론 수렴을 우선시 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이 아닌 학교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비판과 대안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입학정원관리시스템 논란과 '미래비전 2020(안)'에 기반한 기초학문대학 신설 문제도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서로를 이해하고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 대학이 급속도로 변화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協力)해야 나아 갈 때다.



메아리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 국새(國璽)사기극

▲ '비색(翡色)광채와 물처럼 투명한 빛깔' 자신이 원하는 빛깔을 얻지 못한 실망감에 민 노인은 도자기를 깨고 부수기를 수백 번 반복한다. 마침내 '비색 광채와 물처럼 투명한 빛깔'을 띤 상감청자를 완성한 민영감은 결국 당시 국가왕실도자기를 공급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동양인 최초로 아동문학상인 뉴 베리상을 수상한 린다 수 파크(Linda Sue Park)가 저술한 소설 '사금파리 한 조각'은 한국 장인들의 고려청자를 향한 순수한 열망을 그리고 있다. ▲ 지난 1일 '국새(國璽)전통기법의 진위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3대 국새가 1999년 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 의해 제작되었으나 균열이 발견돼 2008년 새로 국새를 제작했다. 이에 제4대 국새 제작단이 발족(發足)되었고 이를 이끈 것은 '전통원천기술'의 보유를 주장한 민홍규 국

새제작단장이다. "국새 원천 기술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그는 결국 열 시간도 채 되지 않은 검찰의 끈질긴 조사 끝에 "원천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이런 사건을 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기엔 뭔가 부족하다. 그 이유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소홀한 관리를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새가 완성된 뒤에 제원, 함량, 무게 등이 기재된 보고서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번 국새 사기극은 정치적 스캔들과도 관련이 깊다. 민씨와 국새 제작에 참여했던 주물담당 이창수씨는 "남은 금으로 도장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예시장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름 없는 개인의 순수한 열정이 깃든 작품보다, 화려한 프로필을 내세운 기업의 기성품이 '장인정신'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

국 그는 행정안전부의 태만함, 정치인의 욕심, 이를 눈감는 공예미술계가 만들어 낸 우리사회의 부유물(浮遊物)인 것이다. ▲ 국새의 '전통원천기술'은 애당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동안 민 씨는 자신의 거짓된 '원천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을까. 진정으로 훌륭한 작품은 아무리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은은한 향기를 자아낸다. 국새 논란을 두고 홍진(紅塵)이 가득한 지금, 문득 숙련된 도공의 손에서 탄생한 장인정신이 듬뿍 묻은 질그릇이 그리워지는 때다. 연극도 무대와 관객이 있어야 성립된다. 그러므로 이번 '국새사기극'은 '국새제작자'라는 허울로 가득한 타이틀이 순수한 장인정신을 잠식해버린 우리나라 공예미술계라는 무대와 수준 낮은 관객으로 전락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유훈우, 편집장 최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Table with 5 columns: Date, Day, Course Name, Instructor, and Location. Includes '불교 대강좌' for 2010 and 2011.

불기 2554(2010년 9월) 재학생 수요일 불교대강좌 일정표
시 간: 학기중 매주 5시 30분~7시00분(1시간 30분)
장 소: 정각원 법당
为中國圈學生實施的中國語法會
“認識佛教是最幸福的事”

결계 신청 및 포살 참여 안내
스님은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람
대한불교 조계종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에 의거, 대중 결계와 포살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교에 재학중인 스님들은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결계 신청
1. 접수 기간: 2010. 9.01(수) ~ 2010. 9. 10(금) 17:00까지
2. 접수 장소: 정각원 사무실
3. 접수 대상: 2010. 2학기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
포살 참여
1. 포살 일시: 2010. 9. 16(목) 오후 5시 ~
2. 포살 장소: 정각원 법당
유의 사항
1.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구(尼)계 수지 불가, 각급 승가고시 응시 불가, 법계 풍수 불가.
2. 기타 문의 사항은 정각원 사무실(☎2260-3016)로 문의 바랍니다.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Menu. Lists various Buddhist meals (e.g., 9/6, 9/7, 9/8) and their ingredients.

## 동국대학교 정각원 (東國大學校 正覺院)

# 잠에서 깨어난 대륙, 상하이 엑스포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지난 8월 14일부터 4박 5일간 동국미디어센터(동대신문사, 동국포스트, 교육방송국)의 학생기자들이 상하이 엑스포 취재를 다녀왔다. 신문 4팀과 방송 5팀으로 나뉜 각 팀들은 상하이 현장 취재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제공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번호에서는 취재에 참가했던 기자들의 취재 뒷 이야기와 사진을 보도한다.



① 상하이의 구 도심인 난징동루. 서구 열강 침략의 흔적과 경제부흥의 자신감이 함께 서려 있다. ② 엑스포 전시장 입구. 엑스포는 매일 수만명의 인파로 가득했다. ③ 상하이의 마천루 푸둥지구. 고층건물과 화려한 조명이 넘실댄다. ④ 한국관 전시장.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상징화한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다. ⑤ 우리대학 동문인 장예원 양.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⑥ 전시장 자원봉사자들을 인터뷰하는 취재단  
사진 = 동국미디어센터 상하이 엑스포 취재단

## '가지 않으면 후회, 가도 후회'



낯선 땅 상하이에서 4박 5일 동안 엑스포 취재. 3주 동안 취재 준비를 마치고 도착한 상하이. 외국에서 하는 첫 취재는 나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한낮의 상하이는 마치 찜질방과도 같다. 체감 기온 40도에 달하는 날씨와, 끊임없이 나타나는 인파는 우리 팀이 취재하기에 지독한 악조건이었다. 속도로 돌아온 길에 택시기사가 말했던 "엑스포는 가지 않으면 후회하지만, 가면 더 후회한다"는 말이 명언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행(苦行)을 거치고 나서 찾아간 전시관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특유의 전통문화와 현대 기술이 적절히 조화된 멕시코관, 원시의 강렬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아프리카 연합관까지 여러 전시관들은 저마다 고유한 매력을 갖췄다. 엑스포는 작은 지구촌이다. 작은 지구촌 속에서 나는 스스로 얼마나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상하이 엑스포, 취재하기조차 막막했던 그 이름은 이제 내 생애 가장 소중한 깨달음의 이름이다.  
동대신문 = 정웅재 기자

## '모험'을 통해 느낀 자각

중국, 그리고 국제도시 상하이에 대한 막연한 설렘도 잠시.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4박 5일간의 해외 취재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고단함



만으로 채우기에 상하이는 활력으로 넘쳐났다. 상하이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민광장 취재 중에는 태극권 사범에게서 태극권의 진수를 맞볼 수 있었다. 푸둥강을 왕복 운항하는 유람선, 그리고 위에서 바라 본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야경. 상점 변화가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진 하모니로 활력이 가득했다. 심지어 노점상인과 거지마저도 생동감이 넘쳐 한국과는 수준이 달라보였다. 한편 카메라 가방을 멋있게 걸치고 연일 사진을 들이대는 우리들에게 많은 중국인들은 순박한 미소로 답해주었고 일부러 멋진 포즈를 취해주기도 하였다. "인간은 모험을 통해서만 스스로에 대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앙드레 지드의 말처럼 상하이에서의 취재는 내게 끊임없는 비교와 자각을 날게 한 진정한 모험이었다.  
동국포스트 = 윤상영 기자

##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



The Dongguk Post의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한 그리고 새

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이었다고 하고 싶다. 해외 취재를 다녀오며 새로운 곳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많이 쌓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며 돈독해 진 동기와 후배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람 사이에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취재를 마지막으로 나의 대학생활 4년 중 2년을 쏟아 부었던 영자신문사 생활이 마감 되었다. 하지만 나는 상하이 취재를 통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도 열심히 바쁘게 달릴 수 있게 출발점이 되어 준 상하이 해외 취재는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동국포스트 = 최정윤 기자

## 소중한 인연(因緣)



상하이에서 취재를 하며 보낸 4박 5일을 되돌아보면 '인연'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상하이 엑스포와 상하이 곳곳을 취재하는 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0 상하이엑스포 D구역에 위치한 한국 기업연합관을 취재하고 싶어 발만 동동 구르던 우리에게 이재성 선배는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우리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이재성 선배는 한국기업연합관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취재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것이었다. 또 "무엇이든 필요하면 말만 하라"는 이 선배는 우리에게 한국기업연합관 도우미를 자청(自請)했다. 이렇듯 학교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선배의 도움을 받다보니 '동국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새삼스레 느끼게 됐다. 4박 5일 간 우리 조의 통역을 맡아 취재를 함께 한 조희상 군과의 인연 역시 잊을 수 없다. 이렇듯 이번 상하이 취재를 통해 얻은 소중한 인연들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동대신문 = 최진아 기자

## 문득 스쳐간 깨달음



상하이 엑스포 취재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갖고 있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일깨워주었다. 우리가 겪었던 한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 팀은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 무엇을 파는 음식점인지도 모른 채 가게로 들어갔다. 한국의 계란 부침, 탕수육과 흡사한 모습이었고 맛도 비슷했다. 다만 탕수육 같은 것이 닭고기 맛이 나고 뼈가 있는데 길쭉했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식사를 끝마치고 우리는 대만족이었다.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날 점심. 한 친구가 웬지 이 음식은 개구리 같다며 못 먹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불현 듯 내 머릿속에 스쳐간 그림이 있었다. 첫날 우리 팀이 먹은 탕수육. 그렇다면 우리가 첫날 먹은 것도 분명 개구리였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상하이 엑스포 취재를 통해서 작게나마 상하이와 중국을 느끼고 나니 그전의 편견들이 부끄러웠다. 마지막으로 더 넓은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다.  
DUBS = 변초희 기자

## 빛의 도시에서의 4박 5일



상하이는 우리에게 설렘의 도시였다. 해외에 나가 볼 기회가 흔하지 않았던 터라 처음으로 중국에 가보는 것이었는데, 게다가 엑스포라니. 엑스포 자체를 겪어보지 않아서 상하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고취되어 있는 상태였다. 상하이에서 특히 우리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택시'다. 다양한 택시 기사들의 모습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중국에서는 '복(福)'을 빼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손톱을 자르지 않는다는 말을 통역하시는 분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택시를 탔을 때 10cm는 넘게 손톱을 기른 택시 기사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 무척이나 놀랐다. 또한 활영을 잇는 정도로 와이탄은 상하이의 메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었다. 쉽게 접하지 못 했던 아름다운 야경을 가슴 가득 품은 채 우리는 와이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상하이에서 해외취재라는 것을 해보았고, 친구와 팀이 되어 여러 가지 준비하고 결정하는 추억을 남겨주었다. 상하이에서의 추억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DUBS = 이수지 기자